

노나모끼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백발의 전사에게

- 백기완 선생님 영전에 드리는 詩

송경동(시인)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을 위해
 청와대 앞에서 47일의 단식을 하면서도
 ‘딱 한 발 떼기에 목숨을 걸어라’던
 선생님은 제 곁에 내내 계셨죠

전사는 집이 없는 거라고
 돌아갈 곳을 부수고 싸워야 한다고
 전사의 집은 불의에 맞서는 거리며
 광장이며 일터이며 감옥이며 법정이어야 한다고 하셨죠
 선생님께 드리는 시는
 동지에게 드리는 시는
 이런 투쟁의 거리에서 써야 제 맛이겠죠

깨트리지 않으면 깨져야 하는 게
 무산자들의 철학이라고 하셨죠
 철이 들었다는 속배들이여

차례

추도시 | 백발의 전사에게 | 송경동 | 3

장례 개요 | 7

연보 | 백기완 선생이 걸어온 길 | 9

호상 인사 | 질라라비 훨훨! 선생님 편히 가소서! | 15

상임공동장례위원장단 조사

민중해방 위한 ‘거리 혁명가’ 백기완 선생을 떠나보내며 | 김세균 | 17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김진숙 | 19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백기완 선생님, 아~! | 박석운 | 21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니 | 신철영 | 24

혁명가이자 최고의 예술가, 고이 잠드소서! | 신학철 | 25

아리아리 땡! 노나메기 한길로 나가겠습니다! | 양경수 | 27

추도사

백기완 선생님께서 보여준 사랑, 고맙습니다! | 김미숙 | 28

그 밝고 환한 깃발이 있어 | 명진 | 30

백기완 선생님, 고맙습니다! | 문정현 | 32

유족 인사 | 오라버니, 장산꽃매 되어 고향으로 훨훨 날아가세요! | 백인순 | 34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 36

썩은 구정물이 너희들의 안방까지 들이닥치고 있구나 하셨죠
내 배지만 부르고 내 등만 따스하려 하면
몸뚱이의 기도, 마음의 기도 안 크다 하셨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온몸이 한 줌 땀방울이 되어
저 해방의 강물 속에 티도 없이 사라져야 하느니
딱 한 발 떼기에 일생을 걸어라 하셨죠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야 한다 하셨죠
저항은 어떤 잘난 이들이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린 풀들이 숲을 이뤄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세찬 바람에 맞서 한결음씩 나아가는 거라 하셨죠

그런 선생님과 함께 한
모든 고공의 날들이 단식의 날들이
삭발 농성 원정 점거 오체투지의 날들이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관료적 질서와 권위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보이지 않는 투신으로
내일 무엇을 얻을 거라는 계산도 없이
오직 지금 여기의 사회적 진실과 신음에 연대해
몸부림치며 절규하던 날들

채증해! 고착해! 포위해! 연행해! 구속해!
십차 이십차 해산명령에도 물러서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노구의 당신과 함께 나아가던
지난 세월들이 눈물겹습니다

그 모든 길에
당신이 어제의 높은 어른이 아니라
함께 어깨 걸고 걸어가는 지금의 친구여서 고맙습니다
그 모든 길에
당신이 지나온 영웅이 아닌 오늘의 동지여서 고맙습니다
그 모든 길에
당신이 말과 훈계와 교훈이 아닌
온몸의 연대와 실천이어서 고맙습니다
그 모든 길에
당신이 타협이 아닌 올곧음이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가고 난 지금
나는, 우리는 누구에 기대어
이 부정하고 압압한 세상을 건너갈까
어디에서 장산곶매의 기상을
함께 일하고 함께 잘 살되
올바로 잘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길이 막히면 뚫고 길이 없으면
새 길을 내서라도 주어진 판을 깨고
노동자 민중의 새판을 열어야 한다는 새뚝이의 이야기를
제국주의와 자본에 맞서 이름 없이 쓰러져갔던
옛 전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나도 선생처럼 영영 권력과 부유함과 나태와 타협하지 않고
끝내 밀바다 민중들과 연대하며
거리와 광장에서 싸우다 쓰러질 수 있을까
두렵고 외로워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마저
전사들의 유산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 끝없는 분노와 서러움마저
전사들의 긴요한 양식이라면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새로운 인간해방의 밑거름이 되어
모든 생명들의 소외와 고통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저 낮은 거리와 광장에서 맺은 우정은
사랑은 결의는
끝내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마웠습니다. 백발의 동지!

【 장례 개요 】

[유가족]

아내 : 김정숙

자녀 : 백원담·이종희 백일·김재영 백미담 백현담·이대일

손주 : 이아름 이하제 백처라 백새넉 이어람

[호상]

양규현·임진택·채원희

[장례 일정] 2월 19일(금)

* 발인제 : 오전 8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 노제(1) : 오전 8시 30분 통일문제연구소

* 노제(2) : 오전 9시 대학로 소나무길

사회 : 박래군(상임집행위원장)

조사 : 김세균(상임장례위원장)

조사 : 박석운(상임장례위원장)

조사 : 이형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조사 : 김수익(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조무 : 한국민족총합회 집단무

● 추모 행진 : 오전 9시 30분

대학로 노제 장소 → 이화사거리 → 종로5가 → 종각역 사거리 <거리굿> →

→ 세종로 사거리 → 서울시청광장

● 영결식 : 오전 11시 서울광장

사회 : 김소연(상임집행위원장)

초박히기 : 신철영·신학철(상임장례위원장)

민중의례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 416합창단·이소선합창단·평화의나무합창단

추모영상

약력보고 : 양기환(대변인)

조사 : 문정현 신부(장례위원회 고문)

진혼무 : 서정숙(한국민족총협회)

조사 : 양경수(상임장례위원장·민주노총 위원장)

조시 : 송경동

조사 :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조사 : 명진 스님(장례위원회 고문)

조가 : 정태춘

유족 인사 : 백인순(백기완 선생님 누이)

호상인사 : 양규현

민중의 노래 합창 : ‘백선생님을 추모하는’ 민중가수들

현화

● 하관식 : 오후 2시 마석 모란공원

사회 : 신학림(장례위 홍보위원장)

추모사 : 조지현(코레일고객센터 지부장)

추모사 :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추모가 : 문화노동자 박준

● 평토제

사회 : 박종부(치산위원장)

소리굿 : 한국민예총 풍물굿위원회

유족 인사 : 백일(백기완 선생님 장남)

호상 인사 : 임진택

백기완 선생이 걸어온 길

백기완(白基玩, 1933. 1. 24. 출생) 통일문제연구소장

1933

- 황해도 은율 구월산 밑에서 태어남.
- 초등학교만 다니고 혼자서 공부함(독학).

1945

- 8·15 해방 뒤 열세 살에 아버지를 따라 황해도에서 서울로 내려옴.
- 한반도 분단이 한 가족의 분단으로 이어져 여덟 식구가 남북으로 나뉘어 살게 되자 갈라진 집안을 하나로 잇고자 통일운동을 하게 됨.

1948~1949

- 독학으로 시, 소설등 문학작품을 읽고, 영어 사전을 모두 외워 영어 천재로 신문에 알려짐.

1948

- 서울 경교장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을 뵈고 고결한 뜻에 영향을 깊이 받음.

1950~1951

- 전쟁 중, 부산제5육군병원(임시육군)에서 군복무.

1951

- 해외유학장려회에서 첫 수혜자로 해외유학을 권유받았으나 싸우는 조국을 두고 나 혼자만 유학 갈 수 없다며 거절.

1952~1961

- 문맹 퇴치를 위한 야학을 열고 도시빈민운동, 나무심기운동(자진녹화대), 농민운동(자진농촌계몽대)으로 젊은 날을 보냄.

1957

- ‘평생동지’ 김정숙 여사와 결혼.

1960

- 4·19혁명 운동에 뛰어들어 혁명 세력을 하나로 묶고 정치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애씀.

1964~1965

- 6·3세대와 연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 반대투쟁 전개.
- 함석헌, 장준하, 계훈제, 변영태 선생 등과 반일 투쟁에 나서 연행 구속.

- 1966**
- 박정희 유신독재 끝장을 위해 재야 연합전선의 하나로 윤보선, 함석헌, 장준하 선생과 함께 야권 통합운동을 성사시킴.
- 1967**
- 장준하 선생과 함께 백범사상연구소 설립을 시도했으나 당국의 탄압으로 무산. 4·19 혁명의 성과와 한계를 수렴하여 한국진보운동의 사상적 토대를 세우는 작업에 힘씀.
- 1969**
- 3선개헌반대투쟁 전개.
 - 장준하 선생등과 함께 <민족학교> 운동을 전개, 항일민족 시편과 항일운동 역사자료 수집.
 -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일회담 반대투쟁의 의미와 독립군, 민중혁명의 의미를 담은 '어린 옛장수의 꿈' 영화극본 창작.
 - 박정희 정권의 반민주성에 맞서다 대한일보 객원 논설위원에서 쫓겨남.
- 1970**
- 전태일 분신과 광주 대단지 사건 등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이 분출하는 가운데 민중항쟁의 주체적 맥락을 다시 세우고자 애씀.
- 1971**
- 민주수호청년협의회 결성, 대표를 맡아 구속 학생 즉각 석방 요구.
 - 한일협정 비준 6주년을 맞아 대일문화투쟁을 벌일 것을 제안하는 성명서 발표.
 - 장준하 선생과 함께 민족학교에서 《항일민족
- 시집》 발간.
- 박정희 정권의 영구집권, 분단독재 강화음모 반대투쟁 전개.
- 1972**
- 백범사상연구소 충무로에 개소.
 - 항일운동 연구에 매진하여 신채호, 백범 등의 글 수집 정리.
 - 《항일민족론》 출간.
- 1973**
- 《백범어록》 출간.
 -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창립.
 - 유신헌법 개헌을 문제 삼고자 재야인사 30명 주도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민족학교 주최로 '항일문학의 밤' 개최, "우리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강연.
- 1974**
-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장준하 선생과 함께 구속.
- 1975**
- 2·15 석방조치로 영등포교도소에서 석방.
 - 장준하 선생 암살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
 - 민주회복구속자협의회 결성.
 - 중앙정보부에 강제 연행, 인혁당 처단 발표 뒤 풀려남.
- 1976**
- 정부의 탄압과 운영난으로 문을 닫았던 백

- 백범사상연구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통일문제연구소>로 확대 설립.
- 1978**
- 백범사상연구소와 자유실천문인협의회(자실) 공동으로 '민족문학의 밤'을 주도하여 중앙정보부에 끌려감.
- 1979**
- 민주청년협의회 결성.
 - '명동 YWCA 위장결혼사건'으로 구속, 전두환 서빙고 보안사로 끌려가 죽음 직전까지 가는 참혹한 고문을 당한 뒤 구속수감.
 - 딸에게 주는 편지 형식의 서간집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출간, 책이 나오기도 전에 24시간 만에 판금 조치에도 대학가와 노동운동 진영의 필독서가 됨.
- 1980**
- 서대문형무소에서 병감정유치로 풀려나 한양대병원에 장기 입원.
 - 투병 중 광주민중항쟁 소식에 분개하며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필연성을 역설.
- 1981**
- 고문 후유증으로 만신창이가 돼 장기요양 중, 옥중시 《젊은날》(비매품)을 지인들의 도움으로 펴냄.
- 1984**
- 재야인사들과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
- 1985**
- 수많은 대학가의 강연 요청에도 경찰의 강제 출입통제(가택연금)로 무산.
 - 고문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을 창립, 서울 지부 의장 취임.
 - 민중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민요연구회, 민중문화운동연합 고문.
 - 대우자동차노조 민주화 투쟁, 구로동맹파업 등 노동자 투쟁 전개에 주목하며 민중연대 지원 노력.
- 1986**
- 민통련 본부 부의장.
 - '민통련 개헌서명자 명단발표' 권으로 민통련 서울시지부 압수수색 및 연행.
 - 명동성당에서 권인숙 성고문사건 진상폭로 대회를 주도하다 수배 중 구속, 합병증으로 위독해지자 서울구치소에서 한양대병원으로 병감정유치.
- 1987**
- 명동성당 성고문 폭로대회 관련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됨.
 - 극심한 고문 후유증이 도져 병감정유치로 한양대병원에 입원 중 재수감됨.
 - 형집행정지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6월 항쟁에 참여, 시민대표로 연설.

1987~1992

- 1987년 대통령선거에 30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독재 청산을 위한 학생, 노동자, 민중들의 요구로 민중대통령 후보로 추대 출마.
- 민주화 세력의 대단결을 통한 민주정권 쟁취와 진보 진영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애쓰.
- 199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완주,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 시대를 알린.

1988~1990

- 통일마당집 마련을 위한 ‘벽돌 한돌쌓기 운동’을 전개해 서울 대학로에 사무실 마련.

1988

- 박종철 기념사업회 초대회장.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 고문.
- 미국 하원의원, 서독 녹색당 초청으로 해외 순회강연 차 출국.
- 전두환 이순자 구속 국민결기대회 참석.
- 6·10 남북학생회담 성사 촉구 성명서 발표.
- 임진각 ‘7·4통일염원 평화대행진’ 참석.
- 핵발전소 안전대책 요구 재야, 학생 시민대회 참석.

1989

- 북쪽 김일성 주석, 남쪽 대표인사 7인에게 남북정치협상 제안.
- 민주화를 요구하는 재야인사 ‘89인 선언’.
- 장준하 선생 새긴돌(시비) 건립위원회 대표.
- 재야 통합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결성.

- 국가보안법 철폐 시민결의대회.
- 노태우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회장 원천봉쇄로 경찰 저지에 쓰러져 백병원으로 이송.
-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학생실무회담 고문단들 경찰의 원천봉쇄로 강제 연행.
- 원전건설반대 100인 선언.

1990

- 민주노총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결성, 고문 추대.
- 노동자대학 초대 교장.
- 전국 6·10 계승대회 참석.
-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의, 방북 질의서 발표.
- 국군보안사 재야인사 민간인 사찰 규탄, 독재정권 퇴진 재야원로 성명 발표.

1991

- 재야 전국연합 창립.
- 민족문화 특강 개최.
- 재야인사 3·1절 시국선언.
- 한반도비핵화 1천인 선언.
- 페놀불법방류 규탄, 반핵평화운동연합 지도위원.
- 원진레이온 직업병 은폐 규탄대회 참석.
- 한진중공업 박창수 열사 추모집회.
- 수서비리사건 규탄과 노태우 퇴진을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백골단 해체 투쟁, 명지대 강경대, 성균관대 김귀정 열사 싸움에 앞장.

1992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결성.
- 강기훈 무죄석방 재야 공대위 결성.

1993

- 전국 구속, 수배,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위원회(전해투) 지원대책위 참석.
- 쌀수입 개방 저지 범국민대책위 결성.
- 신자유주의 분쇄투쟁 전개.

1994

- 전노협 등 재야단체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 사법처리 촉구.

1996

- 고문피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고문 및 공권력 피해자 모임 발대식.

1998

- “양심의 고향을 함께 세웁시다” 민족문화대학설립위원회 대표.

2000

-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잘살고 나도 잘살되 올바로 잘사는 노나메기’ 운동 제창.
- 계절마다 내는 책 《노나메기》 창간.
- 북쪽 조선노동당 창건 55주년 기념식에 초대되어 평양에서 열세 살에 헤어진 누님 상봉.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2001

- 노나메기 통일그날 음악회 주최.
- 노나메기 사상을 전파하는 대중강연회 개최.

2002

-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에서 선정한 올해의 ‘우리말 으뜸 지킴이상’ 수상.

2003

- 이라크 파병 반대 집회 참석, 경찰 방패에 맞서다 부상.

2007

- 이야기 소설 《따끔한 한모금》 창작, 소극장에서 온몸으로 말하는 ‘말림’ 공연으로 발표.

2008

- 《부심이의 엄마생각》 출간, 신학철 화백의 《부심이의 엄마생각》 그림전시회 개최.
-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싸움을 시작으로 용산참사, 쌍용차, 현대기아차비정규직, 유성기업, 콜트콜텍, 파인텍,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희망버스 운동 등 노동자, 민중투쟁 현장에 연대.

2009

- ‘노래에 얽힌 백기완의 인생이야기’ 공연 개최.
- 용산참사 빈민철거민 투쟁에 참여.

2010

- 각계 각층에 우리 민중의 사상인 〈노나메기〉

운동을 제안하고 학술마당 개최.

2011

- ‘너도 나도 일하고 너도 나도 잘 살되, 올바로 잘사는 세상’ 노나메기재단설립추진위원회 발족.
- 밀양송전탑 반대투쟁,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 참여.

2012

- 백기완의 민중미학 특강 개최.
-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싸움에 나섬.

2013

- 각계 대표 인사들과 4대강을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 반대투쟁 전개.
- ‘우리 시대의 저항선언문’ 발표.
- 죽음을 넘어서는 민중의 섯소리 ‘백기완의 시 낭송의 밤’ 개최.

2014

- 세월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 참석.
- 민중사상 특강 ‘나는 왜 따끔한 한모금에 이리 목이 메는가’ 개최.
- 국정원 댓글 사건 규탄 시국회의 참석.

2015

-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 싸움에 온몸으로 가담.
- 민중사상의 정수인 ‘꼴긱때 이야기’ 민중사상 특강 개최.

2016

-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한 집 ‘꼴긱’ 건립을 위해 문정현 신부님과 함께 붓글씨와, 서각 작품으로 <두어른 전시회>를 가짐.

2016~2018

- 박근혜 탄핵, 광화문 촛불집회(23차례)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맨 앞에서 자리를 지킴.

2017

-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우며 추모 연작시 ‘쪽빛의 노래’ 발표.
-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에 힘을 보탬.
- 트럼프의 한반도에 대한 전쟁도발 음모를 깨부수고자 사회원로 기자회견 조직, 직접 성명서를 써서 발표.

2019

- 민중의 전형을 빼어나게 빚어내고 노나메기 사상을 담은 서사《버선발 이야기》출간.
- 태안화력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죽음에 맞서 ‘사람 잡는 비정규직 전면 폐기하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공무원노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시민 사회원로 기자회견 주도.

2020

- 병상에서 심산김창숙연구회가 주최한 ‘제22회 심산상’ 수상.

질라라비 훅훅! 선생님 편히 가소서!

호상 : 양규현·임진택·채원희

1974년 1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영구집권 유신체제를 획책하던 삼엄한 시절, 모두가 숨죽이고 있던 그 때 목숨을 걸고 칠혹 같은 질곡의 판을 돌연 갈라치며 나선 ‘새뚝이’ 백기완!

1979년 11월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시해된 후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를 준비하던 그 살벌한 시기,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으로 거의 죽음에 이르러 전지 요양을 떠나면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리라 맹세하던 ‘쇠뿔이’ 백기완!

1980년대, 광주에서의 그 잔혹한 학살과 처절한 항쟁 이후 그 모든 죽음의 허무 속에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산 자여 따르라”고 뜨겁게 외침으로써 실낱같은 빛을 열어낸 ‘비나리 시인’ 백기완!

그리하여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 6월항쟁의 거대한 물살로 한반도 온갖 적폐를 쓸어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민주진영의 분열로 무산될 절체절명의 시간, 그 정체된 판을 다시 ‘새뚝이’로 갈라치며 나섰던 ‘민중 대통령후보’ 백기완!

독재에 맞서 싸우던 동지들이 흩어지고 갈라져서 하나둘 떠난 후에도 결코 현실정치에 휩쓸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끝내 순수해야 할 주권재민의 불씨를 살려내고 지켜낸 ‘재야의 마지막 어른’ ‘곧은목지’ 백기완!

평생을 우리 사회의 가장 험한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아픈 곳, 가장 힘든 곳에서 언제나 함께 하고 계셨던 선생님, 그 추운 날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민주시민과 함께, 노동민중과 함께, 차디찬 길바닥에 앉아 함께 촛불을 들고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노나메기 세상을 온몸으로 염원했던 ‘민중의 빛’ ‘백발의 전사’ 백기완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떠나실 시간, 노동자 민중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 속에 선생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 무거운 숙명의 짐 내려놓으시고, 장산곶매로 훨훨 날아올라 그토록 그리던 어머니 아버님도 만나시고, 백척간두에 있는 우리 한민족의 앞날을 굽어 살피소서! 선생님이 남기신 과제는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선생님, 편히 가소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질라라비 훨 훨!

질라라비 훨 훨!

질라라비 훨 훨!

끝으로 장례기간 동안 빈소를 찾아 선생님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시고, 지역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조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호상을 대표하여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중해방 위한 ‘거리 혁명가’ 백기완 선생을 떠나보내며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것만 같았던 선생님을 이제 영원히 떠나보내려고 하니 목이 메고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말을 잇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풍부한 민중적 감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선생님의 지성은 그런 감성의 뒷받침을 받은 생동하는 지성이었고요. 선생님은 넘치는 감성을 지닌 지성인의 전형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을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의 일원으로 살았고, 백발의 노인이 된 뒤에도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지로 살았습니다. 그런 친구이자 동지로 사셨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운동의 큰 어른이자 참 스승이 되셨고요.

선생님은 항상 투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고난에도 투혼을 불태우고, 투쟁의 최전선에서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한 싸움에도 자신의 목숨을 거는 투사 중의 투사, 전사 중의 전사였습니다. 아울러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휘몰아치는 비바람과 폭풍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었고, 지친 그들의 심신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보호자이자 좌절하는 이들을 호통치며 그들을 다시 전사로 나서게 만드는 위대한 선동가였습니다.

선생님은 노동해방, 민중해방의 길을 열기 위해 한 평생을 싸운 거리의 혁명가였습니다. 선생님은 “옛날 사람들이 노동하는 과정에서 피땀으로 깨우친” 것이라며,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함께 올바르게 잘 사는” 노나메기 사회를 현대자본주의 문명을 해체시키는 이념적 기초로 삼을 것을 주창했습니다. 선생님의 모든 투쟁은 노나메기 세상으로 변혁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런 변혁을 가능케 하는 ‘한바탕 뒤집어엮기’를 간절하게 소

망했습니다.

그러다 쇠약해 질대로 쇠약해진 노구를 이끌고 투쟁현장을 누빈 선생님의 마지막 소원은 ‘노동현장에서 싸우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의지와 달리, 가족들에 의해 병원으로 모셔진 선생님은 숨을 거두기 직전 병상에서 꺼져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김미숙 어머니 힘내라”, “김진숙 힘내라”를 쓰고, 가족에게는 ‘노나메기’라는 글자를 유서로 남긴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생님의 ‘마지막 투쟁’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병상도 투쟁의 현장으로 바꾸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뫼비나리’에서 말한 “딱 한 발 떼기에 목숨을 걸어라”를 마지막 순간까지 실천한 백기완 선생님, 이렇게 그는 민중투쟁, 민중해방의 깃발을 세워놓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누가 이 깃발을 지켜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는 외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소리치는 피맺힌 함성/앞서서 가나니/산 자여 따르라 산 자여 따르라.” 숨을 거두었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군요. 깃발을 높이 들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선생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김진숙(한진중공업 해고자)

선생님의 부고를 듣던 날 밤. 단 한 장 남은 아버지의 옛날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앨범 속에 끼지도 못한 채 버려지지도 못한 채 떠돌던 사진. 사진으로조차 마주치고 싶지 않던 아버지. 명절이면 ‘불효자는 읍니다’를 다 못 부르고 껴끼이 울던 아버지는 북녘땅 부모형제와 처자식을 찾아갔을까요.

아버지랑 같은 말투를 쓰는 같은 고향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달랐던 분.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라는 선생님의 책을 읽었을 때의 놀라움과 질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다니. 이런 아버지도 있을 수 있다니.

그 후 박창수 위원장의 장례 투쟁에서 동지를 사지로 밀어넣는 듯한 죄책감에 숨죽여 울던 우리를 향해 이 죽음은 안기부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고 국가폭력이라고 일갈하시던 말씀에 우린 죄책감에서 놓여날 수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을 거치며 운동권 절반이 ‘정권의 인사’가 되었을 때도 거친 거리마다 선생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노무현 정권시절 그야말로 재야가 사라지고 오롯이 노동자들만 남아 ‘철없는’ 투쟁을 할 때도 선생님은 늘 맨 앞에서 정권을 향해 비수같은 말씀으로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는 거의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85호 크레인의 외롭고 어두운 터널의 한 가운데서 선생님께서 문정현 신부님, 박창수 위원장 아버님, 박종철 열사 아버님과 함께 한진중공업 담을 넘으시던 그날의 감동을 표현할 말을 저는 10년이 넘도록 찾지 못했습니다. 크레인에서 내려오던 날도 가장 먼저 안아주시던 선생님.

병석에 누우셔셔도 세상에 남긴 마지막 사자후가 “김진숙 힘내라”. 저의 복직투쟁도 그렇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그렇고 노동자들은 기나긴 투쟁을 해야겠지만 포기하지 않

겠습니다.

고문, 대공분실, 국가폭력, 감옥.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많을수록, 알아들을 수 없는 낱말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그만큼 앞으로 간 것이겠지요. 다음 세대는 그런 단어들을 못 알아듣길, 검색을 해도 열른 알아들을 수 없는 세상이길 바랍니다. 다행히 그런 세상이 그리 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백기완 선생님, 아~!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선생님께서 각종 거악에 대해 포효하며 호통을 치시던 그 늠름한 기상과 찌렁찌렁한 목소리, 또 담대하고도 맛깔 나는 수많은 시와 노래들과 그 호방한 웃음과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뽀박박아 울고 있는 노동자·민중과 함께 흘리는 절대적 연대와 따뜻한 공감의 눈물, 이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돈 없고 뺨 없는 이 땅의 민초들은 민중권리의 옹호자, 노동자·민중의 호민관, 백기완 선생님을 잃은 슬픔으로 목이 메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희들이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백범사상연구소 소장으로서 일하시면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파쇼적 만행에 대해 앞장서 저항하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조직하실 때였습니다. 특히 1973년 12월에는 유신독재 체제를 끝장내기 위해 선생님께서 장준하 선생님과 함께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셨지요.

그러자 박정희 독재정권은 화들짝 놀라 “듣보잡” 수준의 폭거인, 개헌논의 자체를 금지시키는 내용으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를 발동하는 무리수를 두게 되었지요. 선생님께서서는 장준하 선생님과 함께 긴급조치 1호 위반 첫 번째 구속자가 되셨지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선생님께서 장준하 선생님과 함께 포승줄에 묶여 군법회의에서 재판받는 모습이 각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던 사진이요. 저들은 두 분 선생님께서 포승줄에 묶여 군법회의에서 재판받는 사진을 크게 실어 대학생들과 국민들에게 고도의 공포심을 조장하려 시도하였지만, 도리어 대학생들과 국민들은 더욱 거센 저항의 길로 나섰지요.

두 분 선생님의 저항으로부터 촉발된 긴급조치는 이후 민주화 투쟁 세력과 유신독재 세력 사이에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쟁투가 벌어지면서 각종 무리수와 파행을 거듭한 끝에 긴급조치 제9호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6년 뒤 1979년 부마민중항쟁으로 발전되고 난 뒤 독재자 박정희는 심복의 총에 암살당하면서, 유신독재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지요.

선생님께서서는 전두환 일당의 신군부세력에 대해서도 최초의 저항을 조직하셨지요. 박정

희 암살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79년 11월 24일 비상계엄하에서 서울 명동 소재 YWCA강당에서 결혼식으로 위장하여 사람들을 모은 후,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를 감행하셨지요.

이 시위로 선생님께서는 전두환이 사령관으로 있던 보안사령부로 끌려가 실로 잔인무도한 고문을 당하시고, 평소 82kg이던 몸무게가 38kg으로 줄어들 정도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지요. 선생님께서 옥중에서 광주민중항쟁의 소식을 듣고 만드신 절창인 뒷비나리는 바로 절실한 민중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되어, 입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 각 지역의 절실한 저항의 노래, 투쟁의 노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열린 대통령선거 공간에서, 그리고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선생님께서는 독자적 민중후보로 나서 노동자·민중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셨지요. 당시 선거공보에 표시되었던 “가자! 백기완과 함께 민중의 시대로”라는 핵심 구호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선생님께서 IMF 외환위기 이후 해일처럼 밀어닥치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광풍 앞에 풍전 등화 같은 처지에 내몰린 이 땅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하는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힘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과 도시빈민 등 기층 민중들의 삶에 깊은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께서는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셨습니다. 통일문제연구소의 이름판을 내걸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그리고 꺾박받는 민중들의 투쟁에 실로 든든하고 품이 너른 ‘기델 언덕’으로 역할을 하셨지요.

재벌 앞잡이 이명박과 독재자 박정희의 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중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자, 선생님께서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 마지막 투쟁의 불꽃을 불사르셨지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투쟁, 용산참사 규탄투쟁, 쌍용차 정리해고 저지투쟁, 한미FTA 비준저지 투쟁,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부정선거 규탄투쟁,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투쟁, 백남기 농민 물대포살인 규탄투쟁, 그리고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과 범국민 촛불대항쟁 등 숨가쁘게 진행되던 민주화 투쟁과 민중대항쟁이라는 큰 전선의 맨 앞줄에서, 선생님께서는 투쟁의 상징으로 우뚝 서셨지요. 선생님께서 병상에 눕기 전의 마지막 활동들입니다.

민중총궐기 투쟁과 촛불항쟁으로 저 무도한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끝장내

는 거대한 승리를 쟁취하고서도, 민중정치, 진보정치의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투쟁의 성과는 유실되고, 지금 이 땅의 민초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감염병 피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주변부 사회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자산불평등, 소득불평등, 교육불평등, 직업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 상황은 거의 폭발직전의 상황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 병상에서도 간절히 기원하셨던 온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김진숙 힘내라, 노나메기” 세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겨레의 큰 어른 백기완 선생님께서는 이 땅의 민주화와 노동자·민중의 해방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함석헌, 장준하, 문익환, 계훈제, 백기완으로 이어지는 ‘재야의 마지막 어른’이셨지요. 백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한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저희 후배들이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사회의 적폐청산과 진정한 민주화, 그리고 사회불평등 혁파와 노동자·민중 해방의 길로 전진해야 할 과제가 남겨졌습니다.

선생님,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며,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되, 올바로 함께 행복한 노나메기 세상”, 평등·평화·통일 세상, 민중세상에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단하셨던 온갖 헌신과 걱정 모두 내려놓으시고, 이제 부디 편안히 지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더 힘을 합쳐 간절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니

신철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백기완 선생님의 부음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선생님의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가슴 절절하게 하시는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가까이 접한 것은 1971년 대학 2년 때였습니다. 당시는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후에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서울공대에서 백기완 선생님을 모시고 대중강연회를 열게 되었는데 제가 연사 교섭을 맡았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연설 내용은 세월과 함께 흐릿해졌지만 청중을 사로잡고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탁월한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선생님은 민중, 특히 투쟁하는 민중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던 분입니다.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투쟁의 현장, 대학생, 문화예술인들의 투쟁의 현장을 막론하고 생존과 자유,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현장에 오셔서 희망을 일깨우고, 사그라지던 용기를 북돋우시던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우리말 사랑이 각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과 글에서 외국어가 범벅이 되는 시대에 선생님은 오롯이 우리말을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통일의 집’을 운영하실 정도로 선생님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크셨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공동번영의 토대를 만들고, 자유로이 왕래하며 마침내 통일로 가는 길목 앞에서 세상을 떠나신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는 가사처럼 남은 우리들이 선생님이 앞서 가신 길을 잘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백기완 선생님!

이제 육고와 꾀박, 고문으로 고생하셨던 아픔 모두 내려놓으시고 이 나라의 장래와 걱정 또한 후배들에게 맡기시고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혁명가이자 최고의 예술가, 고이 잠드소서!

신학철(화가)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선다.”

백기완 선생님의 소식을 접하고 제일 먼저 떠오른 글귀입니다. 질곡에 빠진 역사를 제일 먼저 감지할 수 있는 더듬이를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기에 그 벽과 늪을 온몸으로 깨뜨리고 빠져나오기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술가는 술을 많이 먹어야 한다면서 술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백기완 선생님이야말로 뛰어난 예술가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뫼비나리’는 우리 민중예술의 최고의 경지이자 백미였습니다. 그 어떤 평론가도 뫼비나리에 대해 감히 논평하는 것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민중해방과 통일을 위해 헤쳐가야 할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라도 당신은 ‘따끔한 한 모금’을 나눌 수 있는 세상, ‘꽃놀이패’와 같은 해방 세상을 뫼비나리를 통해 펼쳐 보이셨습니다.

참혹했던 독재시절, 반통일세력과의 투쟁 전선 맨 앞에는 항상 당신이 우뚝 서 계셨습니다. 사람의 정신을 말살하는 천민자본주의와 투쟁 전선에서도 당신은 항상 지팡이를 들고 맨 앞에 서 계셨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 그리고 내 것, 네 것이 없는 노나메기 세상을 꿈꿀 수 있었던 것도 혁명가이면서 예술가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마지막 책 <버선발 이야기>를 몇 번이나 곱씹어 읽었습니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해방 세상의 꿈을 그곳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예수나 석가모니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반도의 ‘3대 이야기꾼’으로 불렸던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던진 최고의 이야기였고, 예술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유독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단순한 사람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덕분에 그동안 통일문제연구소를 들락거리면서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못내 아쉬울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씀 뿐이 아니었습니다. 엄혹했던 독재 시절, 모진 고문과 죽음도 불사하며 한 길로 내달려 오셨습니다. 병상에 눕기 직전까지 비정규직 투쟁의 현장에 나가 그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글을 쓰셨습니다. 당신은 온몸으로 실천하는 투사였습니다. 민주 열사로서도 깨끗하고 구김 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몫만 남았습니다. 제가 만든 당신의 마지막 영정, 상여에 걸릴 작품의 제목은 '산 자여 따르라'입니다. 살아생전처럼 선생님께서 망월동 5.18묘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선생님께서 내쳐 달리셨던 그 길, 이제는 저희들이 따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백기완 선생님이 영면하실 모란공원에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젠 그분들과 못다한 말씀도 나누며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고이 잠드소서!

아리아리 땡! 노나메기 한길로 나가겠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다시 일어나 중심 잃고 길을 찾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맨 첫발, 딱 한 발 떼기의 풍량을 일으켜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아니 바람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굳어버린 심장에 다시 격동을 일으켜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아니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절함과 바람을 뒤로 하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기지 않고 그저 민중의 한사람으로 투쟁해 온 선생님의 삶만 오롯이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바쳐 한평생 나아가던 삶을 민주노총이 이어가겠다고 맹세합니다.

오랜 세월 민중의 어른이었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가르침을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언제나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곁에서 해고당한 노동자의 손을 쥐고 차별받는 노동자와 발을 맞추며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지탱하는 민중들과 함께 생명과 평화, 통일의 꿈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김진숙 복직'의 간절함을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노동자 민중의 삶을 걱정해주신 선생님의 격려에 부끄럽지 않은 민주노총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삶과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위한 투쟁의 맨 앞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선생님께서 앞서 그러셨던 것처럼 어떤 탄압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의 맨 앞자리에 서겠습니다.

〈아리아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혼신의 힘을 다해 애써 찾고, 길이 없을 때는 새로이 길을 내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옆 동지의 손을 잡고 〈아리아리!〉를 외치겠습니다. 자본의 탐욕에 노동자의 생명이 다치지 않는 세상, 모두가 일하고 함께 올바르게 잘사는 노나메기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선생님 편히 쉬십시오!

백기완 선생님께서 보여준 사랑, 고맙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어느 날 저에게 청천벽력이 떨어졌습니다. 24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용균이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처참한 주검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원통해서 미칠 지경이었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서러움을 꼭꼭 눌러 삼키며 사건 해결을 위해 사건 현장과 고용노동부를 찾아다녔고 몇 번인지 모를 추모문화제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는데 못할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산에서 한 달 동안 투쟁했지만 지방이라 그랬는지 더 이상 관심을 받지 못해, 아들 시신을 끌어안고, 서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차디찬 냉동고에 계속 둔다는 것도 참으로 아프고 기가 막히는데 또 서울로 올라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태라 막막하고 많이 힘들 때였습니다.

아들과 같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긴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사회원로들과 함께 백 선생님께서 걸음걸이도 힘든 상태라 양쪽 부축을 받으며 겨우겨우 빈소 안으로 들어오시고 손자뻘 되는 용균이에게 큰절로 두 번 절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원통함과 복받치는 설움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으면 그 어른에게 큰절을 해야 옮겨줄 세상이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되고 있음을 백 선생님은 몸소 표현해주셨고, 바라보고 있던 저로서는 심한 충격이라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아마도 선생님께서 그 때 하셨던 행동이 그동안의 사회에 대한 울분이 제가 느꼈던 울분과 맞닿아 있음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빈소 식당 한 칸에서 원로기자회견을 앉아서 했습니다.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던 백 선생님은 저에게는 천군만마였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광화문광장 추모

문화제에도 오셨는데 송경동 시인의 조사였던가요? 내용이 절절해서 백 선생님께서 기뻐하시며 '송경동 잘한다'라고 응원하셨고, 곁에서 보면서 저도 놀라고, 아파하면서도 감명 받았지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참석하신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기운이 쇠하시어 병원에 입원한지 오래되었건만 코로나로 인해 한 번의 병문안도 못해 어찌나 했는데 이제는 아예 못 뵈게 되어 더욱 애달픕니다. 그래서 더욱 그 모습이 그림고 목마름을 느낍니다. 이제는 어느 누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어른 역할을 해 줄 수 있을지요? 투쟁현장에서는 늘 힘들고 지치기 마련인데 그럴 때 기댈 수 있는 백 선생님처럼 큰 나무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선생님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49제 이전에는 혼이 이승에 머물러 떠돈다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서 지켜보고 계실 백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선생님! 아들 사고 이전에 일면식도 없던 저와 아들에게 큰 품을 내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힘 받고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제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가슴에 뜨겁게 자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문득 선생님의 글귀가 생각납니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김진숙 김미숙 힘내라!”는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오셨던 기억이 스치면서 절절함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저도 힘내서 선생님께서 평생 낮은 곳을 향해 힘주셨던 것처럼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발맞추며 따르겠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므로 저 또한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마음 온 몸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에, 무한경쟁 자본주의에 제재를 가해서 돈을 숭배하는 지금의 잘못된 사회를 비판하셨으며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백 선생님도 우리들의 바람도 교황님의 바람처럼 같을 것입니다. 노나메기 사회를 꿈꾸며 소망하며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밝고 환한 깃발이 있어

명진스님(평화의길 이사장)

백기완 선생님께 “이승을 떠나시는 길에 반야심경이라도 한편 올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명진 스님, 내 길은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염불 대신 민중의 고통과 한을 풀어주는 스님이 되어주소!”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깃발, 하이얀 깃발,
바람 거셀지라도, 눈보라 몰아칠지라도
언제나 대열의 맨 앞자리에서 펄럭이던
우리의 깃발,
백기완 선생님!
'산 자여 따르라, 산 자여 따르라!'
세상의 어둠을 찢는 사자후 토하시며
이 험한 역사의 길,
이 고단한 혁명의 길
깃발 되어
휘이휘이 뚫고 나가시던 우리 모두의 선생님!
그 밝고 환한 깃발이 있어 우리는,
끌려가고 매 맞고 눈물 흘리며 흠어졌다가도
주먹 불끈 쥐고 다시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길 잃고 헤매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신발 끈 동여매고 다시 길을 잡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대의 질곡 속에서
'산 자여 따르라, 산 자여 따르라!'던 선생님의 목소리

지금 다시 우리 가슴을 울리며 묻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정녕 살아 있느냐고?
세상의 어둠을 쏘아보며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 있느냐고? 말입니다.
눈 뜨겠습니다! 살아 있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말씀처럼
눈 뜨고 살아, 그 길 가겠습니다.
선생님을 보내드리며
하늘과 땅, 세상이 울리도록 외쳐봅니다.
'아리아리 땡!' '아리아리 땡!'

백기완 선생님, 고맙습니다!

문정현(신부)

백기완 선생님, 고맙습니다. 백 선생님 앉아계신 곳에다가 인사드리면 꼭 당신 옆에 앉혔습니다. 백 선생님 옆자리가 곧 제 자리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마도 유신 말기 이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항상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면 집회 장소에 가서 어디에 앉을까요. 제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아 외롭습니다.

이제 뜨거운 가슴에서 터지는 불호령을 더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어서기 힘든 노년에도 부축을 받으며 연단에 올라 포효하며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온힘을 다해 토해내셨던 그 말씀들, 죽을 만큼 고문을 당하셨어도 초지일관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두 동강 난 한반도에 대한 애달픈 마음, 독재자들에게 내린 칼날 같은 말씀은 길이 남을 것입니다. 용산참사, 세월호, 백남기 농민, 이 시대의 노동자 농민 빈민의 편에 서서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노나메기 세상에 대한 말씀, 길이 남을 것입니다.

백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남기신 말씀, 이 땅 민중들이 주도한 한반도 평화운동의 맥락 위에 서 있으니 소신 있게 해 나가라는 마지막 뜨거운 숨 놀랍습니다. 백 선생님, 고맙습니다.

강인하신 선생님, 선생님의 자상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화 중 눈물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섬세하고 눈물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을 선봉자로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 백발을 휘날리며 포효하시며 광장을 지키셨습니다. 선생님, 한반도 민중의 광장 한복판에 남아 있을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몸져 누워 계신 줄 알고 회생이 어렵다고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함께 회초밥을 먹으며 또 날 잡아 따끈한 정종 딱 한 모금씩만 입에 대자고 서로 약속했는데 이렇게 그만 가셨습니다. 제가 백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신부님, 우리말 '고맙습니다'라고 하시지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말을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북쪽에 계셨던 어머니, 누님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만나시니 부둥켜안고 실컷 우십시오, 그리고 웃으십시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평화의 세상에서 그토록 그리던 북녘 땅을 휘돌아보시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나아가셨으니 산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뒤 따라 가 곧 만나 뵈겠습니다.

백 선생님 계시던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앉겠습니다. 선생님을 다시 만나 뵈 그 날까지 선생님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라버니, 장산꽃매 되어 고향으로 훨훨 날아가세요!

백인순(백기완 선생 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백기완 선생의 하나뿐인 누이동생 백인순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코로나로 힘든 이때 이토록 많이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처음 뵙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편치 않으실 거예요.

어서 어서 나오시길 간절히 바라셨던 마음이셨을 터인데 제 오라버니 백기완 선생님께서는
무서운 병마를 견뎌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힘겨운 투병생활 속에서도 오라버니는 항상 무언가 깊은 생각을 하시곤 했습니다.

저의 오라버니가 늘 말씀하셨던 민족, 민중, 노동, 그리고 통일에 대해 솔직히 저는 아는 것이
그다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라버니가 커다란 꿈을 이루어 내고자 하셨던 세상이 무엇
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오라버니께서 노상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모두 잘 살되~ 올바르게 잘 사는~

우리들의 ‘벗나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벗나래’란 무엇일까요? 세상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오라버니는 오로지 그 ‘노나메기 벗나래’를 이루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셨지요.

그러나, 저의 오라버니는 지금 벗나래에 아니 계시기에 제 마음은 찢어집니다.

다만 많은 젊은이들이 오라버니의 큰 뜻을 이어받아 그 노나메기 벗나래를 이루고자 버선
발로 나선다고 하니 겨우 마음이 놓입니다.

제 오라버니 백기완 선생님은 이미 이 벗나래에 아니 계셔도 오로지 그 큰 꿈을 이루시고자
또 다시 길을 찾아 나서실 것이니 저 또한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오라버니 백기완 선생님!

먼 곳에 가시더라도 힘내세요!

우리가 어릴 때 듣고 자란 우리 옛살라비 고향 정의롭고 강인한 그 장수매는 큰 싸움에 나
설 때 그 단단한 부리로 제 집, 제 등지를 딱딱 부수는 힘찬 부리질을 한다고 했지요.

오라버니 백기완 선생님!

그 부리질이 끝나셨다면 이제 장산꽃매의 활연한 날개짓으로 훨훨 날아오르세요!

오라버니가 가시는 곳은 항상 제가 가는 길이니 이곳에서 제 온힘을 다해 오라버니의 큰 뜻
인 노나메기 벗나래를 만들기 위해 늙은 발길이지만 허우적허우적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을 갈라놓은 저 분단의 벽을 기어코 넘어 옛살라비 고향도 가고 “저 풋것의 신비인
양 영혼의 그림자 드리운” 그곳, 오라버니의 통한이 서린 백두산 천지에 올라 목이 터져라 오
라버니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오라버니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 오라버니의 뜻을 잇고자 한마음으로 모여 나아가
고자 하니 걱정마시고 부디 편히 쉬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

고문 : 강남식 강내희 강만길 강순정 강정채 고승하 고진형 고철환 곽노현 구연철 권광식 권낙기 권영길 권오창 권오현 권처홍 김걸 김교영 김급수 김남홍 김도경 김동한 김병균 김병길 김병오 김병태 김삼열 김삼웅 김삼근 김선호 김승균 김승호 김애영 김영만 김영숙 김영식 김영옥 김영호 김을수 김인봉 김정길 정현 김정환 김계선 김종철 김준기 김준태 김준배 김태동 김태준 김관수 김한성 김해섭 김호철 김후식 나창순 남상현 노봉구 노수희 노희관 단병호 리명환 립추섭 명진 문규현 문대골 문영희 문정현 문홍주 민만기 박경린 박기수 박덕신 박석무 박세정 박순자 박순희 박연순 박용일 박중기 박진도 박현희 박희성 방정균 배은심 배종렬 백낙청 백도명 백선기 백승현 서경원 서명원 성해용 소순관 손호철 송기숙 송두환 송무호 신경림 안병옥 안성례 안영도 안재창 안춘석 양길승 양득승 양연수 양원진 양희중 양희철 여운호 염무웅 염석오 오세철 오재일 유선근 유영표 유정식 유홍준 윤광장 윤정숙 윤종순 윤한탁 이적 이강 이광석 이기홍 이길재 이명준 이병창 이부영 이상찬 이세춘 이수근 이시영 이시재 이에리 이에주 이영복 이우재 이윤배 이재호 이창복 이창준 이창현 이천재 이해동 이홍길 임방규 임수태 임옥상 임재철 임종태 임현영 장남수 장문식 장임원 장창원 장희익 전대열 전민용 전창일 전홍준 정강주 정규철 정대화 정동년 정동의 정상용 정용기 정재돈 정지영 정해숙 정현찬 정혜열 정희숙 조성우 조순덕 조양일 조영진 조용준 조태환 조화순 조희주 주재환 차명석 채희완 천영세 최갑수 최병모 최사묵 최열 최영관 하성원 하해룡 한기명 한도숙 한상렬 한성수 한승현 한완상 한용상 한창우 한세웅 허연 현기영 현이섭 홍갑표 홍세화 황금수 황석영 (211명)

상임공동장례위원장 : 김세균 김진숙 박석운 신철영 신학철 양경수

공동장례위원장 : 강두형 강만재 강명숙 강석운 강은미 고은광순 국상표 김덕중 김도형 김동만 김동명 김란희 김만재 김명식 김명신 김민호 김상근 김선길 김성팔 김영 김영식 김영훈 김용목 김원호 김의현 김재연 김재하 김재홍 김정은 김종기 김중대 김주환 김준기 김지민 김진석 김진순 김철관 김철수 김현중 김형태 김희룡 나상기 남경남 류한호 문경식 문국주 박경석 박만규 박병애 박미경 박민호 박봉주 박승렬 박재만 박정일 박종권 박종웅 박종화 박태규 박해철 박현옥 박홍배 박홍식 방용승 방인성 배춘환 변경택 봉혜영 서정렬 손남식 송경용 송운화 신대균 신동혁 신승일 신정용 신지혜 신철영 심재환 안성용 안중선 안창희 양홍석 여인철 염성태 오병일 오봉록 오세욱 오영호 용혜인 우석균 원순석 원용진 유경근 유봉식 유영표 윤종술 이갑용 이진범 이광택 이규재 이나영 이동근 이범현 이상국 이수호 이안소영 이용덕 이인숙 이정우 이종욱 이철 이철갑 이철우 이청산 이호동 이호승 임근정 임순혜 임정희 장기용 장명진 장영달 장혜경 장호권 전동일 전태삼 정강자 정명자 정영훈 정왕룡 정용건 정은아 정재민 조든문 조성미 조현정 조현철 지몽 진옥 차현호 채만수 최만정 최석호 최수동 최연봉 최영찬 최영호 최용기 최재영 최진돈 최종인 최홍업 하재길 하태훈 한미경 한상균 한상진 한충묵 허우영 허진수 현린 현지 홍강철 홍인식 황민주 황진도 (167명)

상임공동집행위원장 : 김소연 배래균

대변인 양기환

기획위원회 위원장 송경동

의전위원회 위원장 이도흠 **위원** 김기태 김미숙 양성운 유희희 우문명 이기모 이단아 이명옥 최병현 최현국 한경아

치산위원회 위원장 박종부 **위원** 김기문 이장주 이정호 이창훈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은 **위원** 김덕진 박상미 심규협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태의 이승훈 임영순 **위원** 김수억 김지혜 명숙 정기진 한경준 허성실

운구위원회 위원장 이종문 박효선 황철우 **위원** 김태복 박성호 신용욱 한석호

홍보위원회 위원장 신학림 **위원** 김병기 박점규 장우식 한상진

문예위원회 위원장 신재걸 **위원** 김경만 김보람 김시영 김종선 김천일 김홍구 노순택 류정애 문정현 민정연 박성환 박은태 서정숙 신유아 안창규 오진호 이사라 이원우 이윤엽 임은혜 장소익 정택용 최중호 하셋별 허란 홍성민 홍은혜 홍진현

법률위원회 위원장 조영선 **위원** 김성순 김준우 박아름 이주한 정민영 조수진 조영관

장례위원

개인 Linda Moh Mondtha phy9295 가광현 간우연 강가를 강건일 강경구 강경남 강경식 강경일 강경태 강경표 강규 강규혁 강규혁 강금순 강남식 강남식 강남옥 강남훈 강내희 강다복 강대준 강덕치 강덕환 강도수 강도수 강동배 강동민 강동진 강동현 강만호 강명원 강명자 강명지 강미라 강민주 강민주 강민진 강민호 강병성 강병찬 강병찬 강복현 강봉진 강부희

강석남 강석대 강석도 강석중 강석현 강석희 강선영 강선희 강성권 강성규 강성규 강성남 강성모 강성신 강성호 강성희 강수남 강수남 강수동 강수정 강수혜 강순중 강순희 강승제 강승철 강승환 강승환 강신원 강신인 강연주 강연하 강영만 강영만 강영희 강용재 강용재 강우석 강우철 강욱천 강은규 강은숙 강유진 강윤주 강윤주 강윤하 강은미 강은미 강은비 강은옥 강은주 강이화 강인봉 강인순 강인희 강인희 강인희 강재남 강정구 강정권 강정남 강정숙 강정심 강정애 강정주 강정채 강정효 강정희 강중구 강중임 강중임 강중학 강주미 강주수 강주현 강준구 강지은 강지현 강진관 강진아 강진희 강차순 강찬주 강찬주 강창덕 강창덕 강창록 강창수 강천용 강철민 강철섭 강춘석 강태엽 강태호 강한수 강해음 강혜현 강행옥 강향임 강현만 강현숙 강현옥 강현우 강현정 강현주 강현진 강형철 강혜민 강혜진 강혜진 강호민 강호원 강호원 강화숙 강화숙 강희진 강효경 강후기 강희석 강희송 강희태 김중우 경백수 고건우 고경하 고경하 고경하 고경하 고관홍 고광덕 고광민 고광성 고광윤 고광윤 고권섭 고기석 고낙천 고다는 고대언 고대언 고대언 고동원 고동원 고동환 고동환 고만청 고명선 고명선 고명우 고미경 고미경 고미성 고민정 고복단 고봉희 고부용 고삼순 고석근 고석식 고성환 고성효 고송자 고수봉 고순덕 고순임 고송구 고송남 고송우 고송우 고송현 고안나 고안나 고양근 고양근 고영국 고영연 고영옥 고윤희 고은경 고은광순 고은실 고은아 고은영 고임 고재달 고재현 고제형 고지선 고지선 고지운 고지운 고진광 고진수 고진오 고창건 고철성 고철환 고철환 고태은 고파리 고현순 고혜경 고희권 고희림 고희림 고 봉 고희숙 고희정 공경순 공계진 공계진 공근자 공남희 공병현 공성식 공세연 공수현 공은희 공정옥 공현정 공형찬 공혜경 광경선 광규철 광규철 광노춘 광대원 광두호 광상열 광서린 광선숙 광성용 광성준 광수신 광순철 광승용 광영훈 광원식 광유석 광이경 광인숙 광장영 광재식 광찬열 광대원 광호준 광호준 광희은 광대김광수 구경래 구광모 구교인 구교현 구금희 구명완 구미나 구분직 구성민 구성민 구성주 구성주의자 구수영 구승택 구아영 구영순 구영희 구영희 구원숙 구인호 구자숙 구자연 구자필 구자혁 구자현 구자호 구점숙 구준모 구중서 국강현 국영애 국산목사 국정림 권계영 권광미 권금상 권기봉 권기철 권기환권기환 권기현 권남근 권남옥 권달주 권대동 권도연 권도형 권두섭 권두섭 권두원 권두원 권말선 권명숙 권명숙 권명순 권미강 권미경 권미정 권미현 권민경 권병성 권선희 권선희 권성계 권성태 권수정 권수정 권수현 권순갑 권순우 권순옥 권순정 권순정 권순정 권순택 권영국 권영국 권영국 권영규 권영락 권영란 권영민 권영숙 권영은 권영자 권영철 권영춘 권영혜 권영혜 권오근 권오정 권오준 권오진 권오현 권완구 권용식 권우정 권위상 권은정 권의경 권재석 권정호 권정희 권중우 권지은 권진원 권진희 권철민 권철민 권태식 권태옥 권태용 권태운 권태홍 권태훈 권택홍 권혁민 권혁수 권혁진 권혁진 권현숙 권희진 금박은주 금시면 기승의 기영철 기우성 기우식 기점순 기춘희 길병문 길성환 길인수 김종이 김현 김가영 김가영 김갑수 김갑숙 김강호 김거성 김거성 김진 김진균 김진수 김진수 김진오 김진오 김진중 김진중 김진태 김검희 김경림 김결 김경구 김경구 김경근 김경록 김경림 김경림 김경민 김경민 김경계 김경봉 김경봉 김경선 김경수 김경수 김경신 김경영 김경영 김경은 김경은 김경익 김경현 김경호 김경호 김경화 김경환 김경훈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계주 김계진 김광래 김관일 김관철 김광균 김광래 김광배 김광석 김광선 김광수 김광중 김광중 김광중 김광중 김광중 김광중 김광창 김구대 김구일 김국남 김국진 김근섭 김근섭 김권영 김귀식 김귀예 김귀옥 김귀중 김규빛 김규상 김규상 김규성 김규우 김규원 김규원 김규중 김규현 김규환 김근래 김근모 김근영 김금철 김금희 김기덕 김기덕 김기동 김기룡 김기섭 김기수 김기식 김기식 김기연 김기연 김기영 김기영 김기옥 김기완 김기완 김기원 김기원 김기재 김기주 김기주 김기준 김기준 김기향 김기현 김기형 김기호 김기홍 김길자 김길주 김나미 김나엽 김나혜 김남국 김남규 김남근 김남근 김남를 김남순 김남옥 김남운 김남일 김남철 김남훈 김내근 김다연 김다은 김다정 김다정 김대봉 김대성 김대식 김대식 김대업 김대한 김대형 김대훈 김대훈 김대훈 김대희 김덕수 김덕엽 김덕자 김덕중 김덕지 김덕진 김덕현 김덕현 김덕환 김덕훈 김덕희 김도근 김도연 김도영 김도영 김도윤 김도현 김도현 김도형 김도형 김도형 김도형 김동 김동구 김동국 김동균 김동근 김동길 김동령 김동만 김동석 김동성 김동성 김동수 김동수 김동수 김동수 김동수 김동옥 김동우 김동우 김동우 김동원 김동윤 김동은 김동은 김동인 김동중 김동혁 김동현 김두나 김두림 김두문 김두범 김두현 김두환 김두희 김득의 김디모데 김라현 김란희 김래곤 김령아 김림 김만호 김명갑 김명섭 김명섭 김명숙 김명숙 김명실 김명이 김명임 김명진 김명진 김명철 김명철 김명학 김명호 김명화 김명환 김명희 김모드 김모순 김무강 김문영 김문찬 김문희 김문희 김미경 김미라 김미라 김미령 김미선 김미선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에 김미연 김미연 김미영 김미옥 김미정 김미진 김미화 김미화 김민관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김민선 김민섭 김민수 김민식 김민아 김민아 김민아 김민영 김민옥 김민재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준 김민준 김민채 김민채 김민철 김민철 김민철 김민호 김민환 김배곤 김배아 김백식 김백진 김범규 김범용 김범용 김범태 김병관 김병구 김병기 김병기 김병기 김병기 김병동 김병동 김병석 김병석 김병술 김병인 김병일 김병준 김병철 김병철 김병철 김병철 김병태 김병현 김병훈 김보규 김보근 김보금 김보섭 김보정 김복근 김복기 김복남 김봉남 김봉선 김봉수 김부마 김분경 김삼석 김삼용 김삼웅 김삼철 김삼희 김상겸 김상균 김상길 김상돈 김상만 김상민 김상민 김상민 김상열 김상영 김상옥 김상운 김상은 김상정 김상진 김상집 김상철 김상철 김상학 김상학 김상호신비 김상화 김상훈 김상의 김서경 김서중 김서호 김석 김석 김석규 김석균 김석용

박진희 박진희 박찬식 박찬우 박찬우 박찬익 박찬중 박찬진 박찬진 박찬호 박창완 박창일 박창일 박창현 박창호 박천우 박철
박철순 박철용 박철용 박철준 박철준 박춘희 박치덕 박치영 박태규 박태규 박태식 박태우 박태현 박태훈 박판호 박포강
박하순 박학진 박한백 박한백 박한진 박한희 박해영 박해일 박해철 박행덕 박행란 박행란 박행란 박행란 박행순 박향주
박현구 박현석 박현석 박현주 박현주 박현숙 박현숙 박현아 박현우 박현옥 박현옥 박현우 박현우 박현정 박현정 박현정
박현희 박현희 박현희 박형근 박형근 박형백 박형용 박형준 박형진 박해림 박해명 박해인 박해정 박해정 박해정 박호균
박호석 박호순 박화자 박희승 박희승 박효경 박훈동 박훈근 박훈산 박훈석 박훈식 박훈식 박희권 박희권 박희라 박희린
박희은 박희정 박희주 박희진 박희준 방귀혁 방귀혁 방금성 방두봉 방미연 방민호 방석수 방용승 방용승 방인성 방정균
방정민 방정현 방초롱 방화진 배경숙 배기남 배기남 배동길 배동산 배득현 배미영 배법식 배복님 배복주 배봉은 배상희
배선장 배성숙 배성식 배성민 배소영 배신정 배애리나 배영술 배영준 배예주 배옥병 배옥식 배용한 배용한 배윤자 배윤주
배윤희 배윤희 배은정 배이수 배인호 배일동 배장수 배재경 배재정 배종렬 배종철 배준영 배준영 배준환 배지현 배진교
배창한 배춘환 배한동 배형국 배현영 배현주 배형찬 배형택 배희숙 백진우 백금현 백나미 백남수 백남수 백남수 백남이
백남희 백대진 백도경 백도명 백상일 백상현 백석근 백선기 백성균 백성길 백성덕 백성동 백소영 백송희 백수범 백순옥
백승선 백승수 백승평 백승현 백승현 백승현 백승호 백영광 백영광 백영미 백영우 백운선 백운성 백운성 백운화 백은순
백인식 백자 백종덕 백종성 백종필 백주선 백진솔 백재현 백중렬 백행록 백혜숙 백혜숙 범희갑 법안 변다영 변상아 변성호
변소영 변순옥 변연식 변영민 변우균 변우균 변원섭 변은주 변은주 변자형 변장열 변종철 변종철 변주현 변청수 변현석
변효진 변희영 별남구 봉운숙 부안근 부장원 사공준 사일 상지중 상호정 서강민 서경원 서경호 서경호 서관모 서광수 서광순
서광일 서균택 서금미 서기정 서단비 서대근 서대선 서덕석 서동성 서동선 서동훈 서미자 서범진 서범진 서보람 서봉원
서상민 서상섭 서상원 서상진 서상호 서석태 서선영 서세영 서세원 서숙경 서승옥 서승환 서승환 서쌍용 서안나 서연우
서영만 서영모 서영섭 서영조 서영호 서옥희 서우영 서우영 서원경 서원경 서원모 서원철 서원철 서우리 서유미 서유진
서윤근 서은정 서은화 서의윤 서의윤 서재순 서재욱 서재욱 서재우 서정수 서정진 서정훈 서중환 서진상 서진상 서진호
서진호 서진희 서창호 서재한 서태성 서태원 서한솔 서한수 서해성 서향수 서홍관 서홍석 서효정 서효정 서희원 서희원
석균광 석형준 선미옥 선수연 선애진 선우진영 선재원 선지현 선지현 선진래 선춘자 선한길 설미정 설선길 설순미 설윤식
설진환 성경남 성국모 성근재 성낙규 성대복 성미선 성민규 성보란 성연석 성영애 성영애 성옥규 성인경 성장훈 성재상 성정림
성장기 성장익 성지화 성한민 성해용 성현제 성호경 성훈화 세민 소광석 소규환 소명희 소복자 소순관 소영조 소재섭 소재호
소현민 소형석 손광락 손근자 손근자 손금순 손남식 손남식 손남식 손동신 손동신 손명호 손미순 손미아 손미아 손미희
손범준 손병주(바우) 손병휘 손상철 손성열 손성호 손승일 손신철 손영숙 손영인 손예철 손은경 손은화 손은화 손익찬
손재광 손정원 손종현 손지승 손지은 손지은 손지희 손진영 손진우 손창원 손채은 손태원 손택수 손혜연 손현숙 손현숙
손호만 손호철 손화자 송갑선 송건호 송경선 송경선 송경아 송경용 송경용 송경용 송경준 송계호 송광섭 송권봉 송금희
송기호 송년홍 송동현 송명식 송명숙 송명식 송명희 송무근 송무호 송무호 송미라 송민수 송민수 송민영 송민영 송보라
송보화 송복남 송상교 송성규 송성영 송세진 송승진 송시우 송아람 송아람 송영섭 송영섭 송영섭 송영숙 송영숙 송영숙
송영우 송영인 송영주 송옥분 송용한 송용혁 송우엽 송우영 송옥진 송옥진 송운학 송운학 송원재 송윤남 송윤남 송윤남
송은정 송익근 송인동 송인철 송인태 송재덕 송종안 송주명 송주명 송준호 송중섭 송지현 송진 송진환 송창운 송창익
송천석 송철원 송춘자 송지수 송지홍 송한상구 송해익 송현석 송현석 송형석 송혜숙 송호선 송홍석 송희자 수열 슌효진 시공
시이석 신강협 신건수 신건수 신경준 신경현 신경환 신광용 신광진 신귀섭 신귀섭 신규식 신근호 신근호 신기령 신기정
신기철 신나래 신남섭 신대식 신독 신동례 신동선 신동식 신동식 신동일 신동준 신동찬 신동현 신동혁 신동호 신동환 신동훈
신동훈 신디 신명희 신문수 신문웅 신미경 신미자 신미정 신민주 신선미 신선식 신선아 신선아 신선양 신선하 신성남 신성미
신성원 신성재 신성재 신성철 신소연 신수우 신수정 신숙자 신순애 신승우 신승철 신승훈 신양섭 신연직 신영도 신영배
신영선 신영은 신예경 신예경 신옥희 신옥희 신용범 신용생 신용준 신우용 신운 신웅식 신원호 신유아 신윤실 신윤주 신윤철
신윤철 신윤혁 신윤혁 신은 신은경 신은미 신은소 신인수 신인수 신재길 신재길 신재민 신정섭 신정숙 신정인 신정임 신중수
신중원 신지혜 신진선 신창균 신창복 신창현 신창현 신재호 신천호 신철 신철영 신춘미 신춘희 신태수 신태용 신태희 신하나
신향식 신현석 신현수 신현식 신현웅 신현준 신현철 신현철 신현택 신현호 신형식 신혜선 신혜원 신호승 신홍범
신환섭 신희섭 신희영 신희영 신희주 심광현 심규덕 심규협 심명숙 심미애 심미애 심삼정 심삼준 심영보 심영섭
심우기 심우청 심인호 심일선 심재근 심재숙 심재환 심재환 심재환 심정보 심중숙 심증식 심지선 심지훈 심진 심진규
심철기 심태식 심해인 심호섭 심희준 아사 안건 안건 안건모 안경민 안경섭 안경섭 안경옥 안계섭 안계순 안광균 안광일
안광희 안규백 안그라미 안기영 안기원 안김정에 안나 안남열 안대선 안대선 안동수 안드레 안명자 안문현 안미현 안민영
안병근 안병근 안병대 안병옥 안병주 안병진 안병호 안병훈 안상태 안석운 안성균 안성균 안성민 안성민 안성용 안세영

안수창 안순애 안순호 안승문 안영민 안영민 안영숙 안윤정 안이희옥 안익수 안재범 안재범 안재창 안재훈 안정선 안종호
안주열 안주용 안주현 안중덕 안중선 안지섭 안지연 안지완 안지완 안지원 안지은 안지은 안지중 안진 안진걸 안진걸 안진경
안진상 안창순 안창준 안치성 안태익 안현경 안현정 안현철 안현철 안형준 안형준 안혜영 안호남 안효진 안희만
양경수 양경숙 양고은 양고는 양관석 양광범 양귀자 양규서 양규현 양기관 양기남 양기동 양기동 양기민 양기창 양길승
양다혜 양덕춘 양달규 양동규 양동석 양두철 양명수 양미애 양미자 양복순 양성운 양성일 양세현 양승렬 양승열 양승준
양연수 양영심 양영심 양영한 양옥희 양옥희 양용자 양원현 양은미 양은숙 양인석 양인철 양인호 양인호 양재완 양재평
양정석 양정심 양준석 양진규 양춘승 양춘승 양춘임 양태경 양향진 양혜란 양혜영 양희삼 양후승 양희성 양희철 어광득
어쓰 어용수 어용수 엄강민 엄경애 엄경애 엄교수 엄기한 엄기한 엄길용 엄길정 엄도영 엄미경 엄보컬 엄상빈 엄상진 엄윤준
엄재광 엄정에 엄정흠 엄정흠 엄주용 엄진명 엄태준 여명순 여민희 여연화 여연화 여영국 여영국 여인두 여인철 여인철 여호수
연수연 연영석 연경석 연동호 연민호 연성태 연성태 연성태 연성태 연진형 연진형 오갑수 오경중 오경택 오광식 오금희
오기현 오기현 오기형 오남준 오동진 오동진 오동진 오말임 오명운 오미덕 오민애 오병일 오병주 오상문 오상봉 오상훈 오석순
오석순 오선근 오선덕 오선숙 오성주 오성현 오성희 오세란 오세명 오세범 오세아 오세옥 오세중 오소영 오수선 오수철
오수환 오수환 오순례 오순애 오순이 오승모 오승은 오승재 오승재 오승희 오연홍 오영석 오영자 오영주 오원근 오용석
오원식 오유미 오은미 오은영 오은정 오은희 오을영 오인교 오인환 오재룡 오재현 오재현 오정숙 오제명 오종원 오주섭
오준석 오지환 오진기 오찬혁 오창규 오창규 오창규 오창록 오창화 오춘상 오치달 오태성 오태성 오택진 오하나 오한정
오해숙 오현근 오현정 오현주 오형수 오혜란 오혜성 오혜숙 오홍석 오홍석 오홍재 오효열 오훈도 옥경남 옥효정 왕복근
왕승민 왕희립 왕석록 왕석정 왕혜량 왕혜인 우기수 우다야 라이 우동식 우득중 우문명 우문명 우문순 우문영 우민호
우상태 우석균 우승희 우영옥 우영옥 우용해 우용해 우중숙 우중필 우준하 우지연 우지연 우한기 우희정 우희중 운태경
원동욱 원민동마루 원민석 원순석 원영만 원영민 원용기 원종인 원종태 원진옥 원형석 원혜옥 원희복 위대현 위두환 위성삼
위은진 위정량 유경석 유경수 유경숙 유관형 유광석 유광일 유교상 유국환 유권근 유금문 유금분 유기만 유기수 유기홍
유동명 유매연 유문덕 유문철 유미경 유미하 유병문 유병문 유병수 유복동 이상우 이상현 유선옥 유선희 유성근 유성운
유성희 유소희 유승택 유신혜 유영경 유영선 유영숙 유영주 유영주 유영진 유영표 유영훈 유옥순 유옥주 유왕용 유용균
유용문 유용현 유은호 유이규 유이분 유인수 유재관 유재도 유재동 유재임 유재훈 유정숙 유정식 유정아 유정열 유정의
유제경 유중준 유중천 유중천 유주현 유주현 유지연 유지연 유진규 유진영 유찬중 유창복 유채하 유채하 유철수 유철희
유최안 유춘성 유필선 유학수 유현경 유현숙 유현아 유현주 유혜지 유호성 유홍상 유화숙 유화현 유홍희 유홍희 윤희
윤희경 윤희순 윤희순 윤희원 윤희중 육기엽 윤경로 윤경미 윤경희 윤광화 윤국성 윤금란 윤금순 윤금순 윤금순 윤기륜
윤기진 윤기하 윤나라 윤남용 윤대진 윤대호 윤도현 윤동수 윤동영 윤만식 윤만식 윤명화 윤명희 윤문호 윤미례 윤미연
윤범중 윤병덕 윤병민 윤병수 윤병은 윤병진 윤복남 윤부식 윤석균 윤석인 윤석중 윤성노 윤성현 윤성호 윤소하 윤수근
윤수민 윤순철 윤승길 윤애경 윤애숙 윤여진 윤영규 윤영균 윤영미 윤영상 윤옥희 윤용훈 윤우현 윤운하 윤운하 윤인중
윤인지 윤일규 윤장혁 윤재환 윤정숙 윤정열 윤정원 윤정일 윤정희 윤종갑 윤종화 윤종희 윤종희 윤주형 윤준하 윤지선
윤지영 윤진수 윤진영 윤창근 윤창식 윤태경 윤태경 윤택근 윤필섭 윤필중 윤필희 윤한용 윤한용 윤해모 윤해모 윤혁 윤혁준
윤혁준 윤현식 윤형호 윤호숙 윤화자 윤희숙 윤희준 은영지 은영지 은희령 은희만 이기영 이갑동 이갑용 이강갑 이강순
이강실 이강원 이강희 이건 이건기 이건기 이진범 이경명 이경명 이경미 이경미 이경민 이경민 이경민 이경수 이경수 이경숙
이경숙 이경숙 이경순 이경옥 이경원 이경원 이경은 이경이 이경자 이경주 이경진 이경하 이경호 이경호 이경환 이경훈 이경희
이계석 이고은 이관호 이광남 이광석 이광석 이광석 이광수 이광수 이광수 이광수 이광오 이광용 이광원 이광일 이광일
이광재 이광춘 이광택 이광현 이광호 이광흠 이광희 이광희 이광희 이국연 이귀섭 이귀진 이규동 이규락 이규락 이규량
이규보 이규서 이규연 이규연 이규철 이규환 이규환 이균태 이근선 이근영 이근영 이근원 이근재 이근정 이근철 이근택
이근혁 이금순 이금용 이금주 이기만 이기모 이기모 이기범 이기범 이기범 이기섭 이기원 이기자 이기준 이기중 이기철
이기출 이길연 이김춘택 이나라 이나라 이나서 이나영 이나영 이남규 이남수 이남신 이남진 이남근 이남근 이내중 이노덕
이노덕 이다솜 이다솜 이다영 이단아 이단아 이대근 이대동 이대열 이대우 이대중 이대택 이덕규 이덕우 이덕우 이덕희 이돌
이동균 이동기 이동기 이동기 이동석 이동섭 이동연 이동열 이동영 이동옥 이동우 이동우 이동운 이동익 이동익 이동준
이동준 이동진 이동진 이동철 이동현 이동현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두규 이두솔 이두옥 이두찬 이두희 이득재 이란주
이름은 이만교 이만영 이만재 이만재 이만호 이매순 이맹구 이명구 이명구 이명노 이명숙 이명숙 이명순 이명옥 이명옥
이명옥 이명원 이명위 이명위 이명자 이명주 이명주 이명철 이무상 이무성 이무진 이무진 이문기 이문복 이문수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선 이미선 이미숙 이미숙 이미숙 이미숙 이미숙 이미애 이미영 이미영 이미옥 이미정 이미지
이미진 이미현 이민건 이민규 이민선 이민수 이민수 이민숙 이민숙 이민아 이민애 이민우 이민재 이민주 이민진 이민호 이민호

이방형 이배화 이백운 이병고 이병구 이병근 이병기 이병도 이병렬 이병미 이병석 이병우 이병일 이병조 이병진 이병진 이병천
 이병철 이병하 이병하 이병화 이별 이보길 이보라 이보라미 이보연 이복순 이봉근 이봉기 이봉우 이봉원 이봉주 이봉주
 이봉주 이부영 이부영 이부영 이삼현 이삼현 이삼현 이삼관 이상국 이상권 이상권 이상규 이상규 이상규 이상근 이상길 이상덕
 이상덕 이상도 이상무 이상미 이상민 이상배 이상배 이상배 이상범 이상선 이상선 이상수 이상수 이상수 이상술 이상술 이상신
 이상언 이상연 이상옥 이상옥 이상원 이상원 이상익 이상인 이상인 이상재 이상재 이상준 이상진 이상진 이상진 이상필
 이상하 이상호 이상호 이상화 이상훈 이상훈 이상훈 이상희 이서용진 이석 이석 이석규 이석주 이석진 이석호 이석희 이선규
 이선미 이선영 이선용 이선우 이선용 이선이 이선이 이선진 이선탁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설아 이설희 이섭진 이성경
 이성권 이성균 이성근 이성길 이성민 이성섭 이성숙 이성우 이성우 이성우 이성우 이성우 이성우 이성일 이성재 이성전 이성중 이성진
 이성현 이성형 이성호 이성호 이성희 이성희 이세기 이세우 이세현 이소남 이소연 이소영 이소영 이소영 이소형
 이소희 이송우 이송이 이송환 이수경 이수미 이수민 이수영 이수일 이수정 이수진 이숙련 이숙희 이순규 이순금 이순애
 이순옥 이순옥 이순향 이순홍 이순화 이순곤 이순무 이순민 이순민 이순민 이순배 이순수 이순연 이순열 이순열 이순우
 이순옥 이순원 이순은 이순준 이순준 이순철 이순철 이순한 이순현 이순현 이순환 이순희 이시내 이시백 이시백 이시재 이신
 이아란 이아림 이안 이애리 이양수 이양재 이양진 이어진 이연실 이연재 이열우 이열우 이영곤 이영교 이영남 이영록 이영문
 이영범 이영복 이영복 이영복 이영석 이영선 이영선 이영선 이영선 이영수 이영수 이영숙 이영우 이영일 이영재 이영조 이영주
 이영준 이영준 이영진 이영진 이영진 이영철 이영철 이영철 이영호 이영호 이영환 이영훈 이영훈 이영희 이예순 이오목 이옥근
 이옥선 이외준 이요상 이요상 이용규 이용근 이용기 이용길 이용덕 이용덕 이용식 이용우 이용위 이용재 이용창 이용희
 이우정 이우재 이우철 이운기 이운복 이웅기 이원경 이원관 이원관 이원교 이원교 이원규 이원보 이원석 이원수 이원수
 이원수 이원식 이원영 이원자 이원재 이원재 이원재 이원진 이원진 이원호 이원호 이원희 이위발 이유나 이유미 이유미
 이유용 이유정 이유철 이유철 이윤경 이윤경 이윤미 이윤미 이윤배 이윤엽 이윤중 이윤주 이윤진 이윤진 이윤하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은경 이은미 이은석 이은선 이은숙 이은실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준 이은진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은주 이이순 이인구 이인구 이인구 이인만 이인복 이인선 이인섭 이인섭 이인섭
 이인섭 이인실 이인우 이인호 이인화 이인희 이일동 이장우 이장우 이재광 이재광 이재교 이재교 이재구 이재동 이재로
 이재명 이재봉 이재선 이재섭 이재성 이재성 이재성 이재숙 이재숙 이재영 이재영 이재옥 이재용 이재용 이재용 이재용 이재용 이재용
 이재유 이재운 이재임 이재진 이재현 이재혁 이재현 이재혁 이재혁 이재호 이재홍 이재후 이재후 이재후 이재희 이적 이진탁 이정구
 이정구 이정남 이정민 이정민 이정범 이정선 이정숙 이정숙 이정식 이정아 이정아 이정아 이정연 이정엽 이정엽 이정엽 이정우
 이정은 이정은 이정태 이정태 이정학 이정현 이정호 이정호 이정화 이정환 이정희 이정희 이조운 이종걸 이종경 이종대
 이종란 이종률 이종문 이종문 이종석 이종석 이종술 이종열 이종욱 이종욱 이종원 이종은 이종임 이종진 이종태 이종현
 이종현 이종훈 이종훈 이종훈 이종희 이종희 이주남 이주영 이주영 이주철 이주한 이주형 이주희 이준길 이준범 이준영
 이준우 이준하 이준형 이준형 이준형 이준훈 이종원 이종관 이지담 이지수 이지운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지홍
 이진경 이진구 이진성 이진수 이진수 이진수 이진수 이진숙 이진숙 이진용 이진우 이진우 이진우 이진옥 이진옥 이진택 이진한
 이진형 이진희 이찬교 이찬복 이찬영 이찬영 이찬영 이찬진 이창근 이창석 이창섭 이창수 이창준 이창현 이창호 이창호
 이창환 이창희 이채연 이채연 이천동 이철구 이철우 이철재 이철진 이청우 이청희 이충각 이춘길 이춘상 이춘선 이춘섭
 이춘우 이춘근 이춘로 이춘직 이춘직 이태경 이태규 이태기 이태기 이태성 이태숙 이태식 이태영 이태영 이태영 이태옥
 이태우 이태의 이태일 이태준 이태현 이태형 이태환 이태희 이태희 이택순 이평세 이필 이필남 이하나 이하석 이학성 이학성
 이한별 이한별 이한별 이한주 이항우 이해강 이해성 이해성 이해영 이해영 이해자 이해자 이해준 이해준 이형섭 이형진
 이향란 이향춘 이향희 이혁재 이현규 이현기 이현담 이현대 이현덕 이현미 이현미 이현서 이현석 이현선 이현선 이현선
 이현숙 이현숙 이현심 이현심 이현아 이현우 이현의 이현인 이현정 이현정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철
 이현희 이형 이형 이형일 이형진 이형찬 이혜경 이혜규 이혜숙 이혜정 이혜중 이혜지 이혜진 이혜진 이호성 이호성 이호승
 이호영 이호영 이호영 이호용 이호준 이호중 이호진 이홍구 이홍성 이홍재 이환춘 이황미 이황미 이황희 이훈 이훈기
 이훈기 이홍석 이희동 이희성 이희연 이희중 이희진 이희환 인영남 인치승 일문 임 경빈 임경우 임경은 임경택 임광택 임규영
 임규현 임기범 임기범 임기탁 임기환 임대상 임대호 임동명 임동수 임동순 임동철 임동화 임명규 임명열 임명진 임무성
 임미령 임미숙 임미영 임미정 임미진 임민경 임백령 임병구 임병률 임봉순 임삼래 임삼섭 임삼옥 임상우 임상혁 임석환
 임선화 임섭 임성대 임성주 임성주 임성준 임성호 임성희 임승 임수연 임수철 임수태 임순광 임순섭 임순혜 임순현 임순환
 임시현 임시현 임영국 임영서 임영순 임영탁 임옥상 임용철 임용현 임운택 임월산 임은 임은기 임은주 임은주 임은지 임은운
 임인숙 임인출 임인출 임인혜 임일수 임재근 임재근 임재민 임재섭 임재은 임재해 임재호 임정득 임정엽 임정우 임재현
 임종대 임종만 임종성 임종윤 임종윤 임지연 임진택 임진희 임차진 임창시 임재용 임재일 임재정 임치완 임태숙 임태환

임필수 임한필 임해연 임해정 임현영 임현영 임현용 임현수 임현숙 임현재 임현주 임형석 임형석 임형진 임형진 임혜연
 임혜정 임혜정 임화영 임후상 임희동 자민통 장건 장경연 장경옥 장경옥 장경자 장기용 장길남 장길상 장달수 장대전 장동규
 장동엽 장동원 장동원 장동화 장동훈 장두섭 장두섭 장문규 장문성 장문의 장미정 장미화 장미화 장보임 장상순 장상준
 장석우 장석용 장석원 장석재 장석호 장선화 장성기 장성두 장성암 장성은 장성하 장성환 장성환 장세래나 장세용 장소라
 장소라 장소영 장소의 장수아 장숙희 장숙희 장순영 장순자 장순향 장순향 장승표 장시정 장신환 장애란 장연주 장연주
 장영배 장영선 장영선 장영순 장영애 장영철 장영철 장영태 장영태 장영태 장예정 장욱기 장우석 장우식 장우식 장우정 장운
 장운 장원석 장유식 장유진 장은백 장은숙 장은정 장은진 장인권 장인기 장인기 장인윤 장인하 장재영 장재희 장정식 장정에
 장정희 장재영 장재영 장재현 장중수 장지철 장지희 장지희 장지화 장진영 장진영 장창원 장춘자 장태수 장하루 장해정
 장향미 장형석 장형술 장형자장형호 장혜경 장혜경 장혜영 장혜옥 장혜옥 장혜정 장혜진 재범 적야 전갑생 전경민 전경진
 전경화 전경화 전규석 전규자 전규홍 전근수 전기연 전기환 전나미 전남일 전남일 전대열 전대우 전대환 전동일 전동일
 전말봉 전명훈 전무환 전무환 전문갑 전미자 전민용 전병국 전병국 전병기 전병기 전병덕 전보라 전복철 전봉철
 전비담 전상준 전상호 전상훈 전상태 전소희 전여진 전연희 전영봉 전영아 전영아 전영아 전영중 전용하 전용호 전윤정 전인권
 전장근 전장호 전장희 전재숙 전재일 전재환 전점석 전제광 전종덕 전종출 전종호 전주연 전주희 전주희 전지선 전지운
 전진성 전진수 전진숙 전진한 전진희 전창훈 전채환 전청배 전충배 전택기 전학용 전현경 전현성 전현수 전현식
 전현정 전현준 전현수 전혜은 전호 전호일 전호일 전효섭 전홍준 전희경 전희련 전희식 전희영 전희진 정경모 정경문 정경선
 정경숙 정경애 정경원 정경자 정경호 정경호 정경희 정경희 정광석 정광석 정광수 정광수 정광원 정광희 정구양
 정귀순 정규영 정규영 정규철 정근우 정금자 정기백 정기열 정기영 정기진 정기진 정기호 정기호 정길조 정길재 정길화
 정나위 정남길 정남득 정니콜 정다정 정담 정대식 정대일 정대호 정대호 정대훈 정도상 정도영 정도영 정도화 정동근 정동근
 정동근 정동석 정동석 정동의 정동진 정동현 정두진 정만희 정명기 정명순 정명옥 정명자 정명자 정명자 정명희
 정문영 정미선 정미아 정민석 정민정 정민재 정병석 정병욱 정병찬 정보라 정보람 정보훈 정보훈 정봉우 정봉희 정부교
 정부교 정부영 정부자 정부자 정부자 정산 정상수 정상형 정석원 정석진 정선경 정선미 정선영 정선태 정선희 정선희 정성국
 정성근 정성근 정성래 정성숙 정성용 정성옥 정성옥 정성주 정성진 정성철 정성철 정성철 정성훈 정성희 정세경 정세일
 정세훈 정소슬 정소슬 정소연 정소영 정소희 정수석 정순덕 정순임 정슬기 정승모 정승봉 정승빈 정승운 정승천 정승철
 정시영 정식화 정양주 정양현 정영규 정연숙 정연순 정연우 정연우 정연우 정연진 정연진 정연진 정연탁 정연훈 정연희 정영국
 정영국 정영근 정영대 정영미 정영민 정영섭 정영순 정영식 정영식 정영원 정영일 정영자 정영주 정영철 정영철 정영훈 정영훈
 정영희 정예자 정옥련 정옥순 정완희 정왕룡 정용건 정용건 정용민 정용범 정용운 정용일 정용일 정용일 정용재 정용재
 정용재 정용준 정용철 정용화 정우재 정우진 정우철 정우철 정우훈 정옥식 정은교 정은교 정원도 정원섭 정원순 정원영
 정원오 정원옥 정원현 정유리 정유선 정유정 정윤경 정윤창 정윤희 정은재 정은정 정은정 정은주 정은진 정은희 정은희
 정의현 정이량 정이량 정인기 정인섭 정인학 정일수 정재돈 정재마 정재민 정재민 정재범 정재연 정재원 정재원 정재은 정재은
 정재홍 정재홍 정정남 정정은 정정훈 정정희 정종근 정종근 정종길 정종미 정종민 정종배 정종성 정종성 정종성 정종우
 정중해 정중혁 정주교 정주희 정준현 정준호 정중규 정지숙 정지숙 정지영 정지원 정지원 정지현 정지훈 정진강 정진기
 정진두 정진두 정진우 정진우 정진의 정진형 정진호 정진화 정진화 정진후 정진후 정진희 정찬무 정찬성 정찬식 정찬일
 정창용 정창용 정창현 정창현 정재용 정철훈 정춘교 정충성 정충식 정지균 정지균 정침귀 정태상 정태순 정태훈 정하준
 정한구 정한길 정한길 정한길 정한조 정한철 정해당 정해당 정해명 정해숙 정해영 정해옥 정해진 정향기 정향자 정향자
 정현민 정현목 정현문 정현미 정현숙 정현우 정현정 정현찬 정현철 정현국 정현원 정혜경 정혜금 정혜숙 정혜연
 정혜원 정혜윤 정호 정호기 정호영 정호영 정호의 정호천 정홍근 정홍상 정홍형 정화목 정환윤 정환춘 정효진 정희근 정희동
 정희선 정희성 정희숙 정희연 정희정 제유근 제정화 제희근 제희근 조건수 조경근 조경숙 조경순 조경주 조경희 조계선
 조광남 조광수 조광철 조광현 조귀제 조기숙 조기현 조기호 조길표 조남덕 조남일 조다산 조대식 조대희 조대희 조덕구
 조덕호 조덕희 조덕희 조돈문 조돈희 조동욱 조동주 조득용 조명래 조명제 조명제 조명진 조명환 조모령 조미연 조미진
 조미진 조민지 조민철 조민철 조민호 조병규 조병욱 조병욱 조병준 조병준 조보석 조보석 조상근 조상근 조상기 조상수
 조상수 조상연 조상호 조석원 조석재 조선남 조선동 조선영 조선의 조성규 조성래 조성봉 조성식 조성에 조성옥 조성일
 조성진 조성형 조성호 조성훈 조성훈 조성훈 조성희 조세열 조세현 조세화 조세화 조수정 조수현 조순덕 조순형
 조순형 조승래 조승연 조승연 조승현 조승호 조식 조신희 조아라 조아라 조애자 조양일 조양진성 조연민 조연민 조연민
 조영각 조영관 조영구 조영국 조영래 조영보 조영민 조영민 조영선 조영선 조영선 조영옥 조영옥 조영욱 조영재 조영주 조영준
 조영준 조영혜 조옥숙 조완기 조완재 조용국 조용빈 조용신 조용주 조용현 조용환 조용환 조운 조원영 조원자
 조원자 조원필 조원필 조원호 조원호 조유나 조유리 조윤미 조윤민 조윤희 조윤희 조은구 조은숙 조은아 조은아 조은영

조은옥 조이안 조인영 조인영 조인정 조인태 조일래 조장래 조장우 조장천 조재상 조재연 조재옥 조점화 조점희 조정 조정근
 조정필 조정필 조정현 조정환 조정훈 조중수 조중현 조주림 조준규 조지현 조지현 조지훈 조진 조진권 조진영 조진태 조진희
 조찬배 조창묵 조창익 조창익 조창중 조창현 조창현 조창현 조철현 조춘수 조춘수 조충완 조충철 조하보름 조한경 조한일
 조한용 조한진희 조항아 조항원 조햇님 조현식 조현식 조현민 조현수 조현숙 조현주 조현주 조현주 조현철 조현환 조현희
 조형래 조형수 조형우 조형우 조형일 조형일 조형찬 조혜선 조혜숙 조혜숙 조혜영 조혜인 조혜정 조혜정 조혜정 조혜진 조혜진
 조훈 조훈철 조홍국 조희주 좌세준 주관철 주관철 주관철 주기철 주미순 주미영 주민영 주민영 주범중 주범중 주세훈 주영국
 주재서 주재영 주제준 주중섭 주중섭 주현숙 주훈석 지경환 지구인동규 지민주 지성환 지수민 지연옥 지은경 지은아 지정미
 지정배 지중틀 지창영 지희희 진강필 진강필 진경호 진경환 진기수 진기영 진상우 진상우 진선미 진선미 진성두 진승일
 진영롱한 진영미 진영식 진영하 진영하 진유리 진유성 진지은 진천규 진형우 진혜순 진홍준 차귀너 차덕현 차명숙 차상우
 차상은 차성호 차수철 차용택 차은정 차재근 차재연 차재우 차준녕 차준원 차준호 차한선 채명호 채미정 채민 채상근 채성
 채수환 채양욱 채진호 채호진 채희관 채희찬 채희찬 천계성 천기호 천병삼 천소영 천연옥 천영기 천영환 천용길 천용소
 천재현 천정환 천춘배 천춘호 청화 촛불시민 좌경옥 좌경옥 최선 최강산 최강섭 최건석 최건섭 최경순 최경아 최경아 최경애
 최경자 최경주 최경호 최경호 최경희 최고봉 최고영 최고은 최관식 최광석 최광석 최광선 최광식 최광식 최광용 최국진
 최권행 최귀선 최규남 최규현 최근주 최금주 최기봉 최기영 최기종 최낙선 최남수 최남수 최대근 최대원 최대진 최도는
 최든우 최동식 최동주 최락운 최리운정 최만식 최만억 최만정 최만진 최명선 최명숙 최명숙 최명철 최명호 최문원 최미숙
 최미진 최병문 최병선 최병중 최병철 최보경 최보경 최보람 최보인 최복임 최복태 최사묵 최상구 최상은 최상찬 최상하
 최서현 최석근 최석호 최석환 최석희 최선영 최선운 최선정 최선정 최선희 최성규 최성근 최성근 최성연 최성용 최성주
 최성혁 최성훈 최성희 최수경 최수신 최수연 최수연 최수현 최숙자 최순미 최순미 최순영 최순이 최승선 최승집 최승혁
 최승혁 최승희 최시몬 최양길 최열 최연재 최연재 최연택 최영관 최영덕 최영복 최영선 최영심 최영연 최영연 최영열 최영열
 최영오 최영옥 최영익 최영일 최영주 최영주 최영진 최영태 최영택 최영희 최예륜 최오수 최은숙 최완식 최요식 최용 최용기
 최용범 최용우 최용찬 최용현 최우영 최운규 최운규 최운주 최원호 최운덕 최운덕 최운석 최운정 최윤희 최은미 최은미
 최은서 최은섭 최은섭 최은아 최은예 최은정 최은정 최은희 최을상 최익서 최익석 최익석 최익수 최익수 최인관 최인기
 최인화 최인화 최일배 최일영 최일중 최자용 최자우 최장우 최장호 최재경 최재성 최재소 최재숙 최재철 최재혁 최정기
 최정아 최정아 최정연 최정옥 최정은 최정은 최정환 최정훈 최정희 최정희 최종기 최종두 최종운 최종운 최종진 최종천
 최종천 최종태 최종태 최종하 최준영 최준호 최지순 최지영 최지현 최지현 최진선 최진선 최진연 최진옥 최진일 최진정
 최진혁 최진호 최창근 최창봉 최창우 최창진 최창훈 최철 최철호 최철호 최태룡 최태식 최태영 최태호 최필선 최한미 최혜송
 최현국 최혁규 최현 최현 최현경 최현경 최현근 최현섭 최현섭 최현수 최현오 최현오 최현주 최현태 최형권 최형권 최형권
 최형기 최형록 최형숙 최형호 최형호 최혜인 최혜인 최호길 최호범 최호성 최희용 최효성 최희선 최희연 추미숙 추인호
 추인호 추재호 추창근 추창근 클레어 합 탁무권 탁선호 탁종열 태미화 태준식 퇴휴 편영도 표경식 표은태 피재현 하계진
 하늘푸름 하든우 하딤 하미경 하상복 하상운 하상운 하성만 하성안 하성에 하에남 하에정 하용희 하원오 하윤정 하은성
 하인주 하인주 하장호 하정완 하정우 하진수 하창범 하춘수 하태봉 하태승 하태옥 하태훈 하해성 한강 한경래 한경수 한경식
 한경준 한경희 한광주 한광훈 한규은 한규희 한기명 한기원 한기환 한 대수 한 대식 한도숙 한도훈 한린권 한만선 한만수
 한만승 한만승 한만호 한명희 한묘소 한미경 한미경 한미현 한미현 한민규 한민정 한병길 한병욱 한분희 한상각 한상균
 한상기 한상노 한상미 한상열 한상욱 한상진 한상진 한상훈 한서정 한석희 한석희 한선미 한선범 한선이 한선주 한선주
 한선희 한성규 한성욱 한성욱 한성준 한수진 한승주 한승철 한승철 한승호 한아영 한애라 한연수 한영명 한영미 한영수
 한용진 한우 한원순 한윤숙 한윤희 한재영 한재영 한재영 한재용 한점순 한정권 한정아 한정에 한정은 한재희 한지원 한찬욱
 한창운 한창운 한창호 한태호 한택근 한혜수 한현실 한현호 한홍덕 한효정 함경숙 함경숙 함계남 함민희 함민희 함세용
 함수현 함수현 함은주 향민 허경도 허경주 허광 허근영 허미성 허상수 허셋별 허성실 허성욱 허성자 허성희 허성희 허승일
 허연도 허영관 허영구 허영주 허영태 허영택 허옥희 유경 허윤영 허은영 허정훈 허중기 허지선 허지옥 허채봉 허현옥 허현재
 현경은 현광훈 현근택 현무환 현미향 현봉희 현상운 현애란 현애란 현영석 현인덕 현재순 현정길 현정의 현지 현창훈 현창훈
 현혜소 형인수 헤찬 호영진 호영진 호정진 홍강철 홍관희 홍기복 홍기현 홍기혁 홍남석 홍남용 홍미희 홍박승진 홍봉기
 홍서운 홍석중 홍성국 홍성규 홍성두 홍성두 홍성민 홍성민 홍성수 홍성순 홍성우 홍성우 홍성인 홍성철 홍성학 홍성훈
 홍세화 홍수지 홍순관 홍순백 홍순창 홍순희 홍승근 홍연아 홍예원 홍옥희 홍은주 홍은하 홍인석 홍인식 홍인표 홍인호
 일신 홍재선 홍재현 홍정순 홍정우 홍정의 홍정혜 홍종국 홍종한 홍주영 홍주현 홍주현 홍죽희 홍준호 홍지옥 홍진주
 홍태영 홍태화 홍학기 홍현진 황경의 황규돈 황규범 황규수 황규식 황금평 황남주 황다형 황덕현 황문주 황민주 황민주
 황범구 황병근 황병욱 황병창 황복연 황복연 황삼철 황상길 황상윤 황상윤 황선진 황성은 황성필 황성효 황수선 황수진

황수진 황순국 황순규 황순규 황순식 황순영 황순영 황승연 황양택 황영선 황영선 황영선 황영소 황우찬 황유리 황윤희
 황은환 황은희 황은희 황의대 황의택 황인철 황인현 황인현 황일봉 황정은 황정자 황정희 황종하 황주경 황주현 황준의
 황중환 황진근 황진도 황진우 황찬익 황찬익 황철선 황철하 황치환 황태규 황태용 황풍년 황하일 황해문 황현섭 황형구
 황환철 황효동 황훈주 황희석 황희준 회일 희우(6104명)
단체 (사)24반무예경당협회, (사)365노동자의 꿈, (사)416세월호가족협의회,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사)5·18민주화운동구속부상사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사회, (사)5·18민주화운동유족회,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광주전남6월항쟁,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교육마당, (사)나라풍물굿,
 (사)노란들판, (사)늦봄문학기념사업회, (사)대구민예총,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
 업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사)실로암사람들, (사)오월어머니집,
 (사)원진산업재해자협회, (사)인권도시연구소,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사)전북겨레하나,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사)제주4·3연구소,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충북민예총, (사)터울림, (사)평화철도,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사)함께웃는마을공동체 즐거운가, (재)누리문화재단, 4·27시대연구원, 416연대, 416합창단, 5·18기념재단,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진주시민운동본부, 615시민합창단, 6월민주포럼, 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 가톨릭평화공동체,
 감리교신학대학교 버들다리, 감리교신학대학교 예수더하기, 강민호·박태순열사추모사업회, 강원교육연구소,
 개현연대민생행동, 건실노조 경인지역본부, 경기대학교민주동문회(수원),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북노동인권센터, 경북대 상대 동문회, 경북대학교 경상대 동문회, 경북대학교 민주동문회,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민주동문회, 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경 일대학교 민주동우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강알루미늄지회, 고무모임,
 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경사협의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협진여객지회,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버스정비사회,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소신여객지회,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제주지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공공운수노조 서울상공회의소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부 경기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무주군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부 서울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순창군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부 울산경남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울산경남지역지부 김해시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인천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장수군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정선군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계천시지부,
 공공운수노조 전북문화예술지부,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도립요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여미지식물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환경지회,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광주지역본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공무원연금공단노동조합, 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
 광주890회, 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광역시노동센터,광주극단토박이,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대학교 서울경기민주동문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전남 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자치단체 공무직노동조합,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작가회의, 광주전남지역역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YMCA, 광화문티비, 교육행동애그리맘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국제민주연대, 국제코뮤니스트전망, 권리찾기유니온, 권문석추모회, 권희정열사추모사업회, 극단세벽(부산),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금융정의연대, 기룡전자분회,기 본소득당, 기아자동차광주지회활동가조직
 ‘한길노동자회’, 김두황열사추모사업회, 김성수열사기념사업회, 김영균열사추모사업회, 김용균재단, 김제정의평화행동,
 김진균기념사업회, 김포들가락연구회, 김학수열사추모사업회, 깨어있는 고대84, 꽃다지, 남녘현대사연구소,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예술단 선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주지부, 노동자가여는평등의길, 노동자가여는평등의길 울산위원회, 노동자대학 집행부, 노동자역사 한내,
 노동자역사한내 제주위원회, 노동전선, 노동장애인야학, 노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래 선언, 노래로 물들다, 노무법인 현장,

노무법인참여총청지사, 노수석추모사업회, 노회찬재단,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 겨레하나, 대구경북지역대학민주동맹회의회, 대구경북지역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노동세상, 대구대학교 민주동맹회, 대구민중행동,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륙금속지회, 대안문화연대, 대전문화연대,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좋은세상 뉴질랜드한인모임, 더능, 더불어민주당 대구달서갑,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독일시민단체 한민족유렵연대, 동국대 안전사회대책본부, 동아대학교 민주동맹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행풍물패, 두원 새날을여는노동자회, 류한림추모사업회, 마창계재산재추방운동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모란공원사람들, 목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목포환경운동연합, 몸짓선언, 몽양역사아카데미, 문턱없는한의사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미디어엑트, 민달팽이유니온, 민예총 풍물굿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부패세력청산연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민족문화연구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회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천지역일반노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민주노총 법률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당진시위원회,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민주유플러스노동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민주당, 박성호·원태조열사추모추모사업회,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박영근시인기념사업회, 박영진·김중수열사추모사업회, 박운정추모사업회, 박종태열사추모사업회, 박태영기념사업회, 박현정동지추모사업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노조 태안지부,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 배달호열사정신계승사업회, 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울산병원이부, 부경대학교 민주동맹회,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공공성연대,부산대학교 민주동맹회, 부산여성회,부산외대민주동맹회,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참여연대,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저축은행지부,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애규은행저축은행지회, 사월혁명회, 사회공공연구원,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사회연대포럼, 사회적협동조합 살판, 사회진보연대,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새세상을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로하나, 생명안전시민넷, 생명평화결사,서비스연맹 법률원,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서산플뿌리시민연대,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서울대학교민주동맹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지역대학민주동맹회의회, 서울KYC, 성균관대학교 민주동맹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계시민선언, 세월호광주시민상추모임, 소셜아트 고래, 손석열열사추모사업회, 손잡고, 송광영·천세용열사기념사업회, 순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순천평동사), 순천YMCA, 송실대민주동맹회, 스틸라레이지호대책위원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신길수추모사업회, 신용길선생님추모사업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리프에, 아산박기래 기념사업회, 아산시민연대,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알바상담소, 알바연대, 양감세열사추모사업회, 양심과인권-나무, 양심선언공동체, 언론노조 전북지역협의회, 업성준열사추모위원회,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연세민주동맹회, 열사정신계승실천단, 염호석열사정신계승사업회, 영남대학교 민주동맹회, 예배공동체 광야에서, 예수살기, 예술마당 살판, 오월광장,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나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작가회의,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유가협후원회, 육지사는제주사람,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 이경동한상용열사추모사업회, 이경숙선생추모사업회, 이내창기념사업회, 이석기의원석방과사면복권을위한 광주구명위원회, 이소선합창단,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이영일.림종호열사추모사업회, 이재명지자모임(광주전남위원회), 이천거북놀이보존회,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이화여대 중앙동아리 행동하는이화인,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민노련사람들, 인천사람연대, 일과 노래, 일과놀이, 임을위한행진곡부활촉구100만인서명운동본부,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 단, 장준하기념사업회,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전교조 전북지부,전교조 제주지부, 전교조 해남지회, 전교조상근직원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익산중동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지역금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광주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자동차판매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다우케미칼실리콘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원정공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아이리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게이즈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 열사정신계승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모비스 부산경남제주물류지회,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금속민투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시농민회, 전국대학민주동맹회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JT저축은행지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JT친애저축은행지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서틀버스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 전국여성농민회전북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경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양돈지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민동지회 경남동지회, 전민동지회 부산동지회, 전민동지회 서울동지회, 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성제주도연합, 전주고백교회, 전태일을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전통예술인 클럽, 전통예술인 지음, 전통타악연구소 판, 정기약회, 정광훈의장추모사업회, 정명지회, 정상윤열사추모사업회,정음통일연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정의당 서울특별시장,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정의당전라북도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도청양 천막사람들,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수원열사정신계승사업회, 준배생각, 중소기업유통센터지부, 중앙대민주동맹회, 중앙대학교 사회과학학회 포해, 직장갑질119,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당 광주시장, 진보당 대구시장, 진보당 서울시장, 참여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촛불혁명안성책불연대, 최덕수열사기념사업회, 추모연대-김상진기념사업회, 축산물품질평가원노동조합, 촛배 연, 충남동학단체협의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환경운동연합, 통일엔평화, 통일중매꾼, 평등하고공정한나라 노회찬재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비경기연대, 평화어머니회, 평화의나무합창단, 평화계향군인회, 평화통일센터 하나, 포항환경운동연합, 풀뿌리여성단체 <너머서>, 풍두레, 풍물굿위원회 강원지회, 풍물굿패 다스름, 풍물굿패 샅터, 풍물패 어름, 풍물패 한마당, 한국24반무예문화진흥원,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민족총협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본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스마트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장애인뇌병변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살림전남생산자연합회, 한신민주화를위한학생모임 동문, 한양대학교 민주청년동맹회, 한청협전국동지회, 한화갤러리아노동조합, 해방한림 민주동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현대제철울산지회, 현대중공업지부열사정신계승사업회, 형명재단, 흡리스행동,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화해평화연대, 환경운동연합, 희망새, KU84풍물패 어름, LG청소노동자투쟁연대청년학생모임, NCCK인권센터, SHB사내하청지회 이상(562개 단체)

*** 장례지원**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 장례위원 전체 명단은 baekgiwan.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 쓰러 잠깐 잊어도
조각을 찍어 주고
공장 약으로 약도
